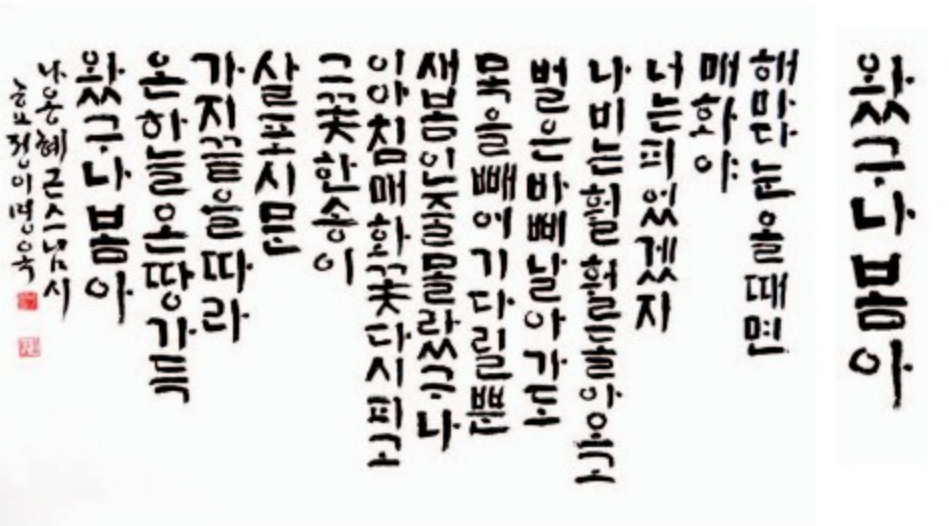
雲門

불기 2556년
봄호
통권 제120호
雲門僧伽大學

호거산 운문사


왔구나 봄아
해마다 눈을 때면
매화야
너는 피었겠지
나비는 훨훨 돌아옥
벌은 바삐 날아가도
목을 빼어 기다릴 뿐
새봄인 줄 몰랐구나
이야 침매화 꽃 다시 피고
그 꽃 한 송이
살포시 문
가지 끝을 따라
온 하늘 온 땅 가득
왔구나 봄아
나옹혜근스님시
호정이명욱

불기2556년 통권 제120호 봄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 왔구나, 봄아
04 죽림헌 — 세계는 한 송이 꽃 명성
06 교수논단 — 불살생계를 통해 본 불교의 생명윤리 1 진광
11 깨달음으로 가는 길 — 봄은 가도 꽃은 남고 편집부
12 차례법문 — 승가의 현존에 감사하며 혜원
14 학인논단 — 현대불교음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 선하
18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딸까닥'의 여유 원범
20 특별기고 — 제주 강정마을의 숨소리 고병철
24 자유기고 — 늦깎이 출가자의 변명
27 운문, 운문인 — 담장 밖의 봄 편집부
28 선사이야기 — 봄비 맞으러 포행 간 날 감응
30 방부소감 — 비 그친 운문사에서 규현
32 풍경소리 — 상좌 선우에게 명은
34 끝없는 여정 — 어장스님의 원력 만경
38 특별탐방 — 사찰음식에서 천상의 음식으로 탈바꿈하다 보원
41 想 —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혜덕
42 이 한 권의 책 — 삶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 일광
44 담소 — 하늘을 할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김연수
46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인욕보살의 원력으로 증진
48 수행의 두레박 둘 — 지대방 조실 미가
50 수행의 두레박 셋 — 오백나한과 오백미 동욱
52 운문논평 — 꽃들의 불이不二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 120호 "숨달"

세계는 한 송이 꽃

명성 / 운문승가대학 회주

미련을 못 버린 겨울이 계속해서 봄을 엿보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만물은 생동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운문사에서는 일년에 두 번 외국인 손님을 치릅니다. 한 팀은 멀리 미국 조오지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다른 팀은 뉴욕, 코리안 소사이어티에서 주관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화탐방을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여러 사찰을 방문하며, 이틀 혹은 삼일 정도를 우리 대중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은 새벽예불, 백팔참회, 발우공양에 동참하면서, 도량에서는 차수하고 걸으며, 김치조각으로 발우도 씻어 먹고, 도량청소도 함께하며, 떠날 때는 사용했던 이불을 햇볕에 널어놓고 떠납니다. 사찰에서의 생활이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떠난 후 이들이 남겨 놓은 설문지를 읽어보면, '절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다, 불교교학을 더 배우고 싶다' 등등의 후기를 써 놓았습니다.

10년 전에 이들을 처음 맞이할 때는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해를 거듭하다 보니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문화 · 피부 · 언어 등이 달라도 한 대중과 같이 정이 듭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가까워지기 전부터 수덕사에 계시던 만공 큰스님께서는 '세계는 한 송이 꽃' 이라고 하셨습니다. 큰스님의 미래 통찰력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욱 실감을 합니다. 여기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산천초목이 둘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 어리석은 자들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인 줄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 것과 네 것을 분별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고 있다.
허나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흙이 있어야 풀이 있고, 풀이 있어야 짐승이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법.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법.
남편이 편해야 아내가 편하고, 아내가 편해야 남편이 편한 법.
남편과 아내도 한 송이 꽃이요, 부모와 자식도 한 송이 꽃이요
이웃과 이웃도 한 송이 꽃이다, 나라와 나라도 한 송이 꽃이거늘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라는, 이 생각을 바로 지니면 세상은 편한 것이요
세상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고 그릇되게 생각하면
세상은 늘 시비하고 다투고 피 흘리고
빼앗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世界一花의 참뜻을 펴려면
지렁이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참새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심지어 저 미웠던 원수들마저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요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세상 모두가 편안할 것이니라…
- 만공 선사 법문 중에서 -

큰스님의 법문에서와 같이 불자들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렁이도, 참새도, 원수도 모두 부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사는 현대인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정토를 구현하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살생계不殺生戒를 통해 본 불교의 생명윤리 [1]

진광 / 운문승가대학 학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불교의 생명관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 세상에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따라서 생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불교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사유체계는 중생(衆生: 衆多한 생명체)이란 말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여러 생명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를 논할 때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 사이의 공생과 공존의 지혜를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형성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생명공동체[1]가 생태계를 무대로 해서 전개된다고 생각하면, 생태계 안에서 각각의 사물과 생명체가 제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존속하고 생활하는 권리의 문제나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윤리, 곧 생명윤리의 과제이다.

원래 윤리(Ethic)는 에토스(Ethos) 즉 관습, 관행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인간의 특성을 이성(Logos)에서 찾으려 했다. 고대에는 주로 아르케(Arche)에 대한 논구에 치중하였고, 중세까지는 주로 유일자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실존철학이 등장한 이래 또다시 이 이성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그 이성적 인간특성의 실천적 전개를 윤리라고 이해한 것이다.[2]

불교의 생명윤리는 열린 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안에서 생명체들(有情) 상호간에, 그리고 무생명체(無情)들과 더불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相依相資) 연기론적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 생명의 원리는 관계맺음(相依相關)이다. 개체는 만물의 살아있는 연관 속에서 자기의 고유한 자리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서 어떤 개체도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개체의 고유한 자기자리와 생명을 부정 또는 파괴(殺生)하는 사고방식이나 행위양식은 생명 파괴적이며 불선不善이다.

이러한 파괴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3]는 '생태학적 위기'와 바로 직결되며, 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기인한다. 그러나 상호의존의 연기론적 사상은 개인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전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위와 같은 연기론적 열린 시스템 속에서 일찍이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이해하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不殺生)을 제일의 도덕적 덕목으로 삼았다.

불교윤리의 근간은 戒(Śīla)와 律(Vinaya)의 실천[4]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모

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실천한다(諸惡莫作 衆善奉行).' 는 측면이다. 이 가운데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가 바로 오계五戒 내지 십계十戒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불살생계不殺生戒' 의 덕목은 현대산업사회 이후 극심해진 생태계 파괴, 생명경시,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근원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교의 생명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불살생계를 통하여 본 불교생명윤리와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불교의 생명관

1) 일반적 의미의 생명

불교의 생명관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는 '생명' 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말 사전》에는 '생명은 대체로 살아 있는 것(생명체, 생물)과 살아있지 않은 것(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 즉 목숨' 을 의미한다.[5] 또는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 또는 특성. 때에 따라서는 생물과 그 활동을 통틀어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6]고 하였다.

일본 《광사원廣辭苑》(암파서점岩波書店)에도 '생물이 생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본원적 속성으로서 감각 · 운동 · 생장 · 증식과 같은 생활현상에서 추상된 일반 개념, 命(목숨/생명)'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다. 또 '命' 에 대해서 《암파고어사전岩波古語辭典》에 의하면 '숨쉬는 세력' 이 원의原義이며, '생명력 · 수명 · 일생 · 생애 · 운명 · 사기死期' 라고 설명하고 있다.[7]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생명 또는 목숨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현상의 근원에 있어 그 생명현상을 지탱하고 있는 또는 생명현상을 현출現出시키는 잠재적 세력의 근본적인 원리 · 작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또한 생명에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설명될 수 없고 다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해지듯이[8] 실제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의미는 셀러

---

1) 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http://www.tojicul.or.kr Aechnote), 2쪽에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은 하나의 연대공동체(Solidargemeinschaft)이며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하였다. 이 의미는 바로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을 떠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들이 없는 자연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2) 정병조, 〈불교윤리와 생명복제〉(http://go.jinbo.net/commune/bbstest.php?board=jts) 2쪽.

3) 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http://www.tojicul.or.kr Aechnote), 2~3쪽 참조.
첫째, 서양의 근세에 나타난 사회적 진화론자들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 자연도태라는 사상을 인간에게 주입시켜 생물계 일반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심어 주어 인간만이 지구의 착취자나 폭군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특권을 가진 것처럼 오도했다.
둘째, 서구인들은 관념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나 간에 자연을 단지 물질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여 기계론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데카르트(R. Descartes)와 라마르크(J. B. Lamarck), 모노(J. Monod)에 이르러 그러한 심신에 대한 이분법적사고는 극에 달한다. 자연은 인간의 필요한 수단으로서만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4) 불교에서의 계율은 삼학의 하나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수행이다. 즉 계를 잘 지킴으로써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생긴다. 그러므로 불교수행의 근본은 이 계 · 정 · 혜 삼학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3판(서울 : 민중서림, 1998년), 1960쪽.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 큰사전》(서울: 어문각, 1992년), 2229쪽 참조.

6)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http://www.encyber.com/), 〈생명〉 항목 참조.

7) 日本佛教學會編, 高橋審也, 〈原始佛教における生命觀〉, 《佛教の生命觀》(日本 : 京都, 平樂寺書店, 1990), 20쪽 참조.

8)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 연구(Ⅰ)》(서울 : 경문사, 1982년), 12~14쪽 참조.

(M. Scheler)나 베르그송(H. Bergson)[9]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생명의 의미는 명증적(evident)이며 본질직관(Wesensanschaung)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이나 사랑과 같은 정신활동이 개념정의가 될 수 없듯이 생명은 개념정의를 할 수 없는 말이다.[10]

우리는 단지 생명은 '의미있고(sinnerfüllt)', '가치가 충분한(werterfüllt)'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 그러므로 살생과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불교의 생명관

우선 인도에서 '생명'과 관련된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jīva : 형용사일 때는 '존재하는, 생활하는, 살아가는, ~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활기를 띤, 건전한'. 남성명사일 경우는 '생명의 본원, 생명의 식'. 한역으로는 '명, 명자, 존명, 활명, 수, 수자, 수명'[12]의 뜻.

② sattva : 중성명사일 경우 '있는 것' 또는 유존재, 실재, 본질, 성질 성분, 성격, 정신, 생기, 생명, 실재물, 실체, 사물. 남성명사일 경우 인, 피, 타, 중생, 유정, 함식[13]의 의미.

③ prāṇa : 남성명사로서 식, 호흡 ; 활력, 생기(복수명사로는 생명). 한역으로는 생, 명, 생명, 성명, 신명, 수, 수명[14]의 뜻.

④ āyus : 중성명사로서 생명, 수명, 장수, 천수, 활력, 활력소, 세계. 한역으로는 명, 수, 수명, 수량[15]의 뜻.

이상의 설명에 의하면 종종의 생명현상의 깊은 근저에 생명현상을 생명현상으로서 성립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상정되며, 그 원리가 개인적 존재의 근거가 된다. 또한 개인의 정신 혹은 영혼,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정령, 근본원리에까지 고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상정되는 것이 아트만(ātman)[16]이다. 이 아트만은 '개체의 영원 불변한 정신원리', '개아', '영혼'을 의미하는 실체의 의미이다. 이것은 항상 불변한 형이상학적 실체이며, 개개의 개체의 생명원리임과 동시에 윤회적 생존의 주체로 생각되어졌다.

당시 인도 사상계는 이러한 영혼(ātman, jīva)을 불멸의 실체로 생각한 정통 바라문교와 자이나교가 있었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신/영혼은 물질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한 유물론자들이 있었다. 붓다는 이러한 두 사상을 모두 부정하였다.[17] 일체의 모든 존재의 속성은 무아이며 무상이며 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정신이나 의식이라고 부르는

---

9) 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 (http://www.tojicul.or.kr Aechnote), 9쪽. 註13), 註14) 재인용.

10) 위의 논문, pp. 9~10.

11) 위의 논문, p. 10, 註16) 재인용.

12) 영본학술재단 편집, 《범화대사전》 (동경 : 강담사, 1979), p. 505.

13) 위의 책, p. 1391.

14) 위의 책, p. 886.

15) 위의 책, p. 204.

16) 남성명사로서 '기식, 영혼, 생명, 자신', 단수, 재귀대명사로서 '본질, 본성, 특색, 신체, 지성, 오성, 아'의 뜻이다. 한역으로는 '성, 자성, 신, 자신, 체, 체성, 기체, 자체, 신, 신식'. 위의 책, p. 188.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연기한 현상임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적인 상관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명의 발생(生)과 그 존속이나 죽음(死, 滅)의 문제를 '연기'와 '업', '윤회' 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업(karma)은 중생들이 짓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육체적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身業, 언어로 짓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이 있다. 특히 의업은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가장 중요시된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는 생명체가 소유한 육체나 영혼 또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18]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찰나생멸刹那生滅의 반복적인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19] 업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법칙 위에 성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악의 행위라는 윤리적인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말하면 업이론은 기계론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생명은 단순히 수명이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라는 자기 생성, 자기 보존, 자기 변신, 자기 완성의 힘을 지닌다.[20] 따라서 선업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10선업과 연관하여 불교윤리의 근본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업에 의해서 그 과보로 삼계육도三界六道[21]에 끝없이 생사를 반복한다.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윤회(saṃsāra)란 '함께 달리는 것', '함께 건너는 것'을 뜻한다. 불교의 윤회설은 윤회로의 지향이 아니라 윤회로부터 벗어날 것을 가르친다. 고통이 상존하는 이 현실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려는 데서 윤회가 인정되고 윤회설이 성립한다.[22]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불교의 생명관 내지는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사대[23]와 오온[24]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대란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의 물질적 요소이며, 오온은 색온(물질) · 수온(감수작용 즉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 상온(상상) · 행온(의도) · 식온(인식작용)으로서 색은 물질적(육체적, 사대는 색온에 포함됨) 요소이며, 수 · 상 · 행 · 식은 정신적 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다. 이를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한다. 그러므로 나와 모든 존재는 공간적으로 무아요, 시간적으로 무상이다. 이렇듯 일체의 존재가 인연에 의하여 생기하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공空이라고 한다. 연기는 곧 무아이고, 무상이며, 공이다.

다음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존재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생명의 상호의존적 관계인 연기의 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

17) 이중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p. 41.

18) 이중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p. 46.

19) 윤호진, 〈생명공학의 도전에 직면한 불교의 윤회설〉, 《불교평론》 제4호(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pp. 56~60.

20) 정승석,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반성〉, 〈대전 : 한국동서철학회, 2003년 12월), 《동서철학연구》 제30호, p. 306.

21) 삼계란 욕계 · 색계 · 무색계를 말하고 육도란 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아수라 · 천상이다.

22) 최재천 엮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획연구실 기획,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서울 : 궁리, 2001년), p. 317.

23) 사대설은 존재의 물질적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이다.

24) 오온설은 불교의 인간관으로, 인간은 오관(눈 · 귀 · 코 · 혀 · 몸)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요소(色)와 정신작용인 감수작용(受) · 인식작용(想) · 의지작용(行) · 판단작용(識)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25]

이 구절은 모든 존재는 그것을 형성시키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소멸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상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생명을 영혼과 육신으로 이해하려는 기존의 생명관이 생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무명을 인으로 하여 노사에 이르는 십이연기설인 연기법의 자각을 통해 생명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과성과 상의성의 의미를 지니는 연기의 법칙은 모든 존재가 불변하는 자성을 가지고 독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들과의 어우러짐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현실의 세계를 떠나 존재하는 초월적 실재나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원한 본체, 상주하는 개체적 자아, 불멸의 영혼, 창조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연기법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초기불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생멸은 오직 관계의 틀 안에서의 연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를 불생불멸의 중도라고 한다.[26] 이것이 모든 존재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실상은 불생불멸이요, 무시무종이다. 인간과 세계는 마치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듯 다만 변화할 뿐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여여한 모습 그대로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제일의제, 진여, 법계, 불성, 여래장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와 온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하고, 생명은 서로 얽혀 한 생명의 그물을 이루고 있다는 불교의 생명관은 인간이 모든 생명에 대하여 이타적인 삶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에 근거하여 나와 他,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자타불이 自他不二의 사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般若: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자비(사랑)를 통해 실현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에 봉사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공생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구조 속에서 통일적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인간 중심의 윤리에서 보다 확장된 생태 중심적·생명 중심적 윤리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25) 《雜阿含經》 卷第12(大正藏 第2卷), 85쪽 中段.
'緣起法者… 所謂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謂緣無明行 乃至純大苦聚集 無明滅故行滅 乃至純大苦聚滅'

26) 양형진,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불교평론》 제11·12호 합본(서울 : 불교시대사, 2002년, 여름·가을) 참조.

봄은 가도 꽃은 남고

어떤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쪽에서 따뜻한 마음을 열어 보여야 저쪽 마음도 열린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는 동물과 식물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간다.
식물은 인간이 이 지구에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와 꽃을 가까이한다는 것은 무한한 우주의 생명 앞에 마주 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산 목숨을 소홀히 여겨 무자비하게 허물고 살해하는 이 막된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나무와 꽃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전하는 우주 생명의 신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은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은 살아갈 수 없다. 한 그루 나무와 꽃을 대할 때 그 신성 앞에 고마운 생각부터 지녀야 한다.
봄은 가도 꽃은 남는다.

– 법정, 『홀로 사는 즐거움』, 〈봄은 가도 꽃은 남고〉 中에서 –

승가의 현존에 감사하며…

혜월 / 대교과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저는 삼보 중에서 승가의 소중함과 그것의 현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구니의 기상과 맥이 살아있는 한국에서 태어나 출가하신 대중스님들께서는 승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무슬림이 국교인 저희 나라에서 승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이 있더라도 종교 단체가 아닌 사회복지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시절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불교를 알게 되었고, 『청정도론』을 읽고 그런 수행자가 되고 싶어 법사스님께 출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사스님께서는 말레이시아에는 승가가 없으니 출가하고 싶다면 미얀마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법사스님 아래서 흰색가사를 입고 8계를 지키며 상좌부 승가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승가가 없다면 출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승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미얀마로 가서 10계를 지키는 출가 생활을 했습니다. 계, 정, 혜 3학의 불법이 아직도 살아 흐르고 있는 남방불교 승가의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가 되어 바닷물을 마시고 그 맛이 짜다는 것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4년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심과 열정은 자라났지만 비구니 승가가 없는 승가에 대하여는 때때로 설자리 없는 불안한 마음에 당황스러웠고 절망의 순간도 간간이 있었습니다.

삭발하고 출가자 모양의 옷을 입었지만 승려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남방 여성출가자들은 이러한 곤혹과 좌절 속에서 결국 불교의 전파와 발전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약자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해 남방에서의 비구니 승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계를 지키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비구스님으로부터 8계 또는 10계를 받아 지니는 출가 생활을 하지만 비구니계를 받을 승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미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승가란 무엇일까요? 계와 율에 의지하여 수행자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

수행자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저는 상좌부 여러 나라를 수행 다니면서 출가한 지 오래되었거나 또는 얼마 되지 않은 여성출가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발우공양이나 가사 수하는 법 또는 출가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승가의 현존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며 그것의 필요성을 통감하곤 했습니다.

상좌부에서는 비구니 승가가 사라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승불교에서는 비구니 승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는 종단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행자교육으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를 받은 이후 5안거 동안은 스승 아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에 맞게 승가교육 시스템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통 강원교육 시스템은 대중과의 화합을 핵심으로 하면서 각자 소임에 책임을 다합니다. 대중생활의 규칙을 대중이 함께 결정하고 지키는 법은 마치 부처님 당시에 상가회의가 있을 때는 상수멸진정에 든 아라한일지라도 참석해야 하는 것처럼 대중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운문사는 부처님같이 깨닫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사원을 관리하며 계율을 지키고 승려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며 불법을 유지,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비구니 승가대학입니다. 치문에서 몸을 조복 받는 힘을 키우고, 사집에서는 밭 농사를 통하여 공양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사교 때는 후원에서 대중스님들을 외호하는 법을 배우고, 화엄에서는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술과 사찰을 운영하는 능력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승려로서의 인식교육을 받은 수행자들은 쉽게 사견이 일어나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때 순조롭게 섭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이나 다른 전통 사회 속에 있을 때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승가의 현존은 승려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부승제도가 잘 남아 있는 한국의 승가 교육 시스템은 출가는 했으나 승려로 인정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오고 있는 동남아나 서양의 많은 출가 여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왕궁을 방문했을 때 야소다라는 아들 라훌라를 시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고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라훌라가 유산을 달라고 하자 붓다께서는 아들을 출가시켰습니다. 스님이 되는 것이 아버지인 붓다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유산인 승가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 그분 가르침의 핵심인 계, 정, 혜 3학을 부지런히 닦아 우리 스스로를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혜월 스님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 수행 중 한국 비구니 스님을 만나 한국에 와서 출가하였습니다.
119호 차례법문 〈불사(佛事)〉에서 '한무제' 를 '양무제' 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음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

- 현대기독교대중음악(CCM)과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Perspective of Buddhist music

선하 / 대교과

목 차

Ⅰ. 서 론
Ⅱ. 현대불교음악과 CCM의 정의
Ⅲ. 현대불교음악과 CCM의 현황비교
Ⅳ. 현대불교음악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발전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음악은 희로애락의 인간감정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며, 심리적으로 감정이입을 빠르게 하고, 초자아를 승화시키는 힘이 있다. 즉 음악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분이나 의도하는 바의 방향으로 개인, 혹은 대중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음악은 심리적으로 감정이입이 잘되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어느 방편보다도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음악은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 감정의 언어이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언어이다.[1]

현대불교음악이 포교적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불교음악에 대한 무관심, 혹은 포교 활용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 또 전문 인력 양성의 부족과 음반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불교음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을 위해 현대 기독교대중음악(CCM)과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이후 현대기독교음악은 CCM으로 표기한다)

Ⅰ. 서 론

한국불교음악의 경우 인도 서역을 거쳐 중국에서 크게 발전한 음악이 유입되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천, 전래된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범패이다. 범패는 해방 이후 쇠퇴하였지만 영남, 호남,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범음이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2] 지정과 더불어 전승되어가고 있다.

현대불교음악의 시작은 1927년 백용성 스님[3]이 시작한 창작찬불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대불교음악은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현대적 기법에 의해 새롭게 변모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 현대불교음악과 현대기독교대중음악(CCM)의 정의

1. 현대불교음악이란?

불교음악이란 불교에 관계되는 각종 음악 또는 불교도들에 의해 발생된 성명聲明, 강식講式, 화찬和讚, 어영가御詠歌, 무악관현악舞樂管絃樂 등이 이에 속한다. 불교음악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에 들어와서 크게 발전하였다. 현재는 1920년대 이후 창작찬불가가 현대불교음악을 주도하고 있다. 찬불가는 구비口碑전승으로 전래된 전통음악과는 달리 서양기법에 의해 작곡한 곡들이다.

2. CCM이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말 그대로 동시대의 음악적 흐름을 따르는 현대적이며 대중적인 스타일의 기독교 음악이다. 즉 CCM이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모든 대중음악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음악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담고 있는 근본 사상이나 문화와 역사성이 동시대의 흐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밑바탕에 담고 있기도 하다. 비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다. 그저 음악일 뿐이다. 그러나 CCM의 전반적인 의도는 가사의 내용과 음악인들의 소양까지도 기독교적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용어는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현대 대중음악 스타일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현대기독교대중음악의 본격적 발달은 가스펠(Gospel)에서 시작된다. 가스펠은 번역하면 '복음성가'이다. 복음성가는 성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로 전통적인 찬송가에 비해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표현하며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4] 한국에서의 가스펠은 1970년대 말부터 꽃을 피웠다. 이후 눈부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외국의 유명한 뮤지션들과 그들의 다양한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최신정보의 공유를 통해 CCM의 활성화가 가속화되었다.

현대의 CCM은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그만큼 대중의 기호와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다. 주로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종교적인 목적,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거의 없던 기독교음악이 선교와 오락의 기능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상당수가 일반가요나 팝에서 오락을 얻고 있다. 즉 CCM을 듣는 시간 이외에는 세속의 음악을 듣는 것이다. 같은 대중음악이라면 CCM이 크리스천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선교에도 이 CCM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나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5]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

1) 알퐁스 질버만, (음악사회학), 민은기 역, 서울 : 예솔, 1997, p. 58.

2)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2009.9.30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이다.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를 중심으로 전국 사찰에서 초종파적으로 거행되고 있다.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3) 백용성(白龍城, 1864년 5월 8일~1940년 2월 20일)은 한국의 승려이자 독립 운동가이다. 불교 종단의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일제가 사회 문화 전반에 왜색을 도입하면서 불교에서도 대처승을 인정하는 정책을 펴자 자신이 세운 대각사大覺寺를 중심으로 왜색불교 추방 운동에 앞장섰다. (화엄경) 등 경전의 한글화 작업과 일요 어린이 법회 개설, 거리 포교 및 찬불가 도입 등으로 불교 대중화와 포교 방법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4) 양동복, (새로운 대중음악 CCM), p. 14.

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1, No. 6 pp. 2144-2151, 2010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요가 및 음악 치료의 효과 분석).

III. 현대불교음악과 CCM의 현황비교

1. 현대불교음악 현황

(*이 부분은 다양한 공연, 이슈화된 공연의 기사와 뉴스 사례를 소개한 부분이다. 지면상 사례 자료를 생략하다 보니 내용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을 밝힌다. 뒤이은 현대불교음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방안에서 좀더 구체적인 현황이 언급되니 참조 바란다.)

산사음악회는 이미 불교계의 브랜드가 된 콘텐츠이다. 전국에서 산사음악회를 하는 사찰은 많다. 하지만 다만 장소가 사찰일 뿐 일반 음악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임동창씨가 총연출한 해인사 음악법회 '화엄만다라' 의 경우, 그 기획이 아주 참신하여 그 당시 이슈화 되었다. 기획 과정에서 음악회의 목적과 성격을 좀더 고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음악계 중에서도 '성악계' 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제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불교 음악계에서 '교계 최초의 남성 중창단' 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신설된 불교음악단체나 연주회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공연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그 존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불교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불교음악이 명상이거나 트로트 형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특히 힙합이나 록 스타일의 음악이 더욱 그러하다. 불자들의 의식과 연령대가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곡들이 비록 드물게 나오더라도 이러한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의식 '영산재' 가 이스라엘 카미엘 야외극장에서 공연된 사례의 경우, 유럽 사람들은 특히 실제 불교수행에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신비롭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위 공연은 뮤지컬 '명성황후' 나 비언어非言語 공연인 '난타' 처럼, 한국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정통 예술 콘텐츠도 세계무대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2. CCM 현황

인터넷에서 CCM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본 결과 네이버(www.naver.com)의 경우 무려 983건의 사이트가 검색되었으며 다음(www.daum.net)의 경우 138건에 달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현장에서 CCM이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 90년대의 놀라운 번영을 뒤로 한 채 하향길에 접어들었다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CCM은 여전히 불려지고 있고 많은 예배사역자가 존재하고 또 장래희망으로 예배사역자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정도로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았다. 또한 CCM을 통한 기독교의 부흥을 꾀하는 노력은 각양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활발한 콘서트 활동의 증가이다. 기존의 예배만을 위한 음악이기보다는 좀더 대중 가까이로 다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CCM이 늘고 있다. 콘서트의 형식도 홍대나 대학로 등의 클럽이나 극장을 이용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예배사역자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 예배사역자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대중가수나 공연기획, 뮤지컬, 연극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힙합은 1970년대 미국 뉴욕의 빈민가에 거주하던 흑인들이 형성한 자유와 즉흥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총칭한다. 힙합은 현대 대중가요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르이다. 특히 청소년층의 지지를 받으며 모든 대중가요에서 힙합의 느낌이나 리듬을 사용하지 않은 음악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CCM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장르의 발달인데

한국에서는 힙합CCM 음반이나 그룹이 몇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아직 한국의 CCM은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하기에는 문화적 환경이 미국의 CCM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최근에야 힙합 그룹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불교와 비교했을 때 그룹의 존속 기간이나 대중의 호응도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의 경우 CCM학과가 있다. 다양한 교수진과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외래 교수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다른 학과와의 공동 공연은 공연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중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공연하는 학생들의 신앙심을 더 고취시키는 일석삼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불교와는 달리 전문교육기관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IV. 현대불교음악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발전 방안

1. 다양성의 부족

찬불가요의 경우는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많고, 새로운 앨범이 발매되어도 기존의 곡을 다시 부르고 몇 곡만 새로 창작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불가요로 분류한 앨범은 100여 개가 넘는다 하더라도 같은 곡을 빼고 나면 그 절반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불교음반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불교인터넷음악방송(www.buimusic.com)을 살펴보면 불교음악을 장르별로 나눈 카테고리가 몇 개 안 되는 걸 볼 수 있다.

생활찬불가	의식찬불가	명상의 음악	경전과 독경	명상의 말씀
400곡	23곡	59곡	69곡	85곡

특히 힙합이나 락의 경우 앨범이나 가수의 수가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해 기존에 발매된 음반들은 대체로 일부 연령층에 편중된 성향을 보인다. 불교음악이 다양해지려면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계층이 다양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CCM이 주로 20, 30대의 청년층이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장르의 다양화가 확대되었듯이 우리 불교계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종교라 하여 서양풍의 음악보다는 국악풍의 음악이 더 불교적이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어떠한 형식이나 장르가 아니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음악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딸까닥' 의 여유

– 전 전국비구니회장 사서 소임을 마치고 –

원법 / 운문승가대학 중강

채경당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행자시절, 겨우 출가한 곳을 알아내어 찾아온 부모님을 매정하게 돌려보내고 보화루 한켠에서 눈물로 바라보던 빗소리와 닮아있다.

다시 읽었다. 스님의 법문집과 서간집, 그리고 평전. 사서소임을 끝내고 난 현애상懸崖想에 걸려버린 듯하다.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갈枯渴 때문이 아님은 분명하다. 明자 星자스님께 직접 체험한 그 큰 무언가를 섣불리 삼켜 소화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전이 그려놓은 스님의 모습은 어느 한 가지 보태거나 미화되지 않았으며 법문 내용은 곧 스님의 일상 모습에 다름 아님을 사서소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아니 출가자가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갓 피어난 연꽃의 이슬처럼 조촐한 향내를 낼 수 있을까!

학인시절에 스님 시자를 살았었지만 사서 소임이 주어짐에 혹여 회장스님께 누를 끼칠까? 잘 보필할 수 있을까? 걱정이 깊었던 것은 특히 스님의 비구니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8년간의 비구니회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회장을 선출함에 투표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각에선 회장스님이 중재를 하여 추대로 해야지 그냥 두고 보냐는 따가운 시선 등이 오갔다. 스님은 침묵하셨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 몇 날 며칠이고 스님은 서 계셨다. 큰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는 스님의 고뇌는 감히 깊이를 헤아릴 수도, 어떤 외부적, 물리적인 것으로도 그 침묵을 깰 수 없었다. 스님께선 평소 어떤 일에 대하여 변명 아닌 해명이라도 할라치면 '선자는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善者不辯, 辯者不善)' 라고 말씀하신다. 말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如說修行) 모습 그대로이셨다.

또한 이번에 회장으로 나온 두 분 스님들은 모두 스님을 모시고 간부소임을 본 분들이셨다.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이를 회장스님께 들고와서 하소연한다. 이때 스님께서는 '사람을 쓴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려거든 그 사람을 쓰지 말라.' 하시며 두 분께 한결같은 신뢰를 보이셨다.

스님의 침묵과, 그 침묵이 빚어낸 서릿발 같은 단호함과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아끼시되 말씀하신 것은 꼭 행하시는 실다움, 그 실다움이 가져다주는 진실한 여유가 8년간 비구니회의 수장으로서 한국비구니 위상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드날리는 한 동인動因이 아닐까 한다.

비구니 회장 소임을 마친 뒤 스님은 너무 즐거

우신가 보다. 당신의 사비를 털어 백오십 분에 가까운 육순 · 칠순 · 팔순이 넘으신 비구니스님들께 보시하는 등 이런저런 불사금을 쾌척하여 통장을 0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소녀처럼 천진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신다.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열 가지 미소를 짓듯이 말이다. '이제 막 출가했다 여기고 수행하겠다.'는 스님의 눈빛은 어린애의 눈동자를 방불케하고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과도 닮아있다. 그 눈빛으로 어느 날 불이문을 지나가시면서 "자꾸 우리 우리 찾지 말아요. 우리에는 돼지가 살아요." 하셨다. 스님 곁에 있던 우리들은 순간 폭소를 했지만 이어 스님께선 "평등성중에는 피차가 없고 대원경지에는 친소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불이不二예요."라고 하셨다. 나 혹은 우리만 찾는 사람은 그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또 어느 날은 맑고 청명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왜 하늘이 파랗고, 깊은 물이 푸른지 아느냐고 물으셨다. 이어 스님께선 공기도 물도 색깔이 없는데 푸르고 파란 것은 '공기가 쌓여서, 물이 쌓여서' 그렇단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도리'라고 말씀하신다. 순간순간을 일깨워 주시는 기지와 해학의 너머에는 깊은 사유가, 오랫동안 쌓인 한결같은 수행의 힘이 온축된 결과임은 스님을 곁에서 모셔본 이는 누구든 쉽사리 만끽할 수 있다. 무색이 쌓이고 쌓여 푸르디푸른 빛을 그려내듯 스님의 조촐함은 매 순간 딸가닥 들어맞는 여유, 쌓지 않은 쌓임에서 비롯된 향기 그것이었다.

"스님께 계수 정례합니다. 부족한 제가 스님 모시는 동안 건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야계 다리를 건너는 내내 많이 즐거웠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매사에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한결같이 사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었음을 보여주신 바 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 없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지남指南 삼아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도량은 빗소리로 침묵하고 큰방에서는 참선납자들의 움직임조차도 새어나지 않던 그날은 진정 내가 심출가心出家한 날이었다. 무거운 침묵만이 친구가 되어주던 그날의 그 고즈넉함이 오늘 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매화비梅花雨에 흠뻑 나를 재발심시키고 있다.

* '딸까닥'은 스님께서 '정확하게 딱 부합하다, 들어맞다'할 때 '딸까닥 들어맞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매우 경쾌하고 산뜻한 어감을 느끼게 한다.

제주 강정마을의 숨소리

고병철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불교의 종교성지' 연구로 운문사를 방문했을 때 학감스님께 고마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인연으로 알게 된 운문사 편집부로부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원고를 청탁 받았다.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주문 내용을 문의하였다. 그 내용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안에 관한 전반적 소개, 종교단체의 시민운동 내지는 참여운동, 불교적 평화 또는 불교적 해결방안'이었다.
편집부에서는 '사견'이라고 전제했지만, 그 주문 내용은 강정마을의 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이었다. 다만, '불교적 평화 또는 불교적 해결방안'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이 부분은 여러 종교를 공부하는 종교학자보다 불교만 공부하는 불교학자가 오히려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달리 말하면, 필자가 불교적 해결방안을 주장하기에 부족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낯선 인연의 소중함과 고마움, 그 동안 종교현안들에 기울여온 개인적인 관심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이 강정마을 사태에 관심을 부여하고, 향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데에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시각차

이제 필자와 함께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로 떠나자. 약 1시간 정도면 비행기는 남해안을 보고 있는 제주시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차량으로 공항에서 빠져나와 한라산 중턱을 넘어 반대편으로 향하면 길가의 야자수와 함께 이국적 경치를 뽐내는 서귀포시에 도착하게 된다. 서귀포시의 한쪽에 우리가 보려는 강정마을이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인해 사방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지역이다. 강정마을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해군본부는 1993년에 해군기지의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후, 해군본부는 2002년에 서귀포 화순항을 기지로 선정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3년간 유보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에 강정마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사태도 시작되었다. 정부 측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주요 일지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1)]

- 2007년 4-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 결정(4월), 제주도에서 강정마을로 후보지 선정 및 국방부에 선정 · 건의(5월), 국방부에서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후 제주도에 통보(6월)
- 2007년 8월 강정마을회에서 임시총회로 유치 결정을 뒤집고 반대 입장 표명
- 2008년 9월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 발표
- 2009년 1월 국방부에서 국방 · 군사시설 계획 승인
- 2010년 11월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수용의사 공식 발표
- 2011년 3월 육상시설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12년 1월 총리실에서 검증위 구성하여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관련 검증 중

위의 내용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흐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대체로 반대하였다. 정부는 반대 움직임을 완화시키고자 2008년 9월부터 국가안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였다. 반대 움직임은 여전했고, 쌍방 간의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부 측에 유리했고, 정부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정부 측에 따르면, 공사 진도는 2011년에 목표 33%에 미달된 14%였고, 2012년 1월 말 기준으로 16.1%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반발은 확대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사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사업 초기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와 관련하여, 2007년 8월에 마을의례회관에서 진행된 찬반 투표에 성인 1,050명 가운데 725명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찬성 36표, 무효 9표, 반대 680표가 나왔고, 투표 불참자 300여 명을 모두 찬성표로 해도 반대표가 약 70%였다고 한다.[2)] 이들 사이에 공사는 진행이 아니라 '강행'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측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해군과 제주기지사업단 홈페이지, 그리고 강정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아울러 강정마을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 강정마을, 문제와 갈등의 이미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작고 아름다운 동네였다. 2007년 4월에 정부가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후,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 이후, 강정마을의 이미지는 '작고 아름다운 동네' 에서 '문제와 갈등의 공간' 으로 바뀌었다. 강정마을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강정마을의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별 생각 없이 사용되는 '문제와 갈등' 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제問題' 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1)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적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향해」, 『공감』(2.18.), 2012, 11쪽.
2) 「평화 잃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 『한겨레』, 2011. 07. 26.
3) 홈페이지 : 대한민국해군(http://www.navy.mil.kr), 제주기지사업단(http://www.jejunbase.navy.mil.kr), 강정마을(http://www.kangjung.com).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우리는 왜 그런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문제'라는 표현 속에 '희망과 현실 인식'이 동시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갈등葛藤'은 어떤 현상에 대해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다르게 이해하는 부류들이 혼재할 때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경험하고 취하는 입장들의 혼재가 마치 한 나무에 칡넝쿨이 얽힌(葛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와 갈등의 의미를 강정마을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정부(특히 해군) 측은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싶은데 강정마을 측과 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그 간극을 문제로 인식한다. 강정마을 측은 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아야 하는데 해군 측이 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그 간극을 문제로 인식한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즉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양측이 다른 자리와 입장에서 희망과 현실의 간극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현실화하면서 갈등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정마을은 갈등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3. 갈등의 결과와 남는 몫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부터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순례를 시작한 '생명평화순례단'의 도법 스님, 권술용(순례단장), 문규현 신부 등의 일행은 강정마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목도한 후에 남한 곳곳을 순례하기로 한 계획을 보류하고 제주도 전역을 돌며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 왔다.[4]

2012년 2월의 경우만 해도, 2월 15일에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구럼비 바위 출입 무단침입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공개 질의를 던졌다.[5] 2월 16일에는 문정현, 함세웅 신부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국회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면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경찰의 폭력 및 인권유린 등의 중지와 당 차원의 공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그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4·11 총선 공약으로 정할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6]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의 '평화비행기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7]

향후, 강정마을 사태는 오히려 총선·대선과 관련하여 쟁점화될 소지가 있다. 정부 측과 주민 측, 정부 측과 외부인사 측, 정부 여당 측과 야당 측의 구도 속에서 갈등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갈등의 결과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파를 끝까지 감내할 존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갈등의 결과와 여파가 과연 누구의 몫으로 남을 것인가?

강정마을 사태를 들여다보면, 갈등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이다. 너무 오랜 갈등 상황이 문제인 이유는 그 갈등으로 인해 주민의 희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09년 9월에 지역 언론사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담에 응한 주민의 75.5%가 적대감·우울·불안·강박증에 시달리고, 43.9%가 자살충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8] 이 내용은 그동안 한 동네에서 이웃사촌처럼 살아온 주민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생기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갈등의 결과와 여파가 강정마을 주민의 몫이 되어, 그들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셈이다.

4. 강정마을 사태와 사회 참여

강정마을 사태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종교의 참여이다.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NCCK)와 아시아교회협의회(CCA), 충청지역 4대 종단모임(불교 · 원불교 · 기독교 · 천주교), 조계종 총무원 원우회, 원명선원(제주시 화북동),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범종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불교환경연대 · 원불교환경연대 · 천도교한울연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가톨릭계가 제주교구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개신교계가 동참한 이후, 다소 늦게 불교계가 가시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교계의 사회 참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해야 한다. 종교에는 '나'와 '우리'를 둘러싼 이 두움(현실)에서 빛(미래 혹은 또 다른 현실)을 지향하는, 그리고 그 간극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내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인에게는 그 간극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숨소리를 감지해 낼 수 있는 태도가 요청된다. 종교인에게는 그 간극에서 발현되는 숨소리를 감지하여 평화로운 숨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이것이 종교인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근거는 아닐까?

흥미롭게도, 강정마을 사태의 경우에 불교계의 외침과 참여는 다른 종교에 비해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교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발현하는 숨소리를 중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왜 불교계는 강정마을 사태에서 발현된 숨소리를 감지하고 그 숨소리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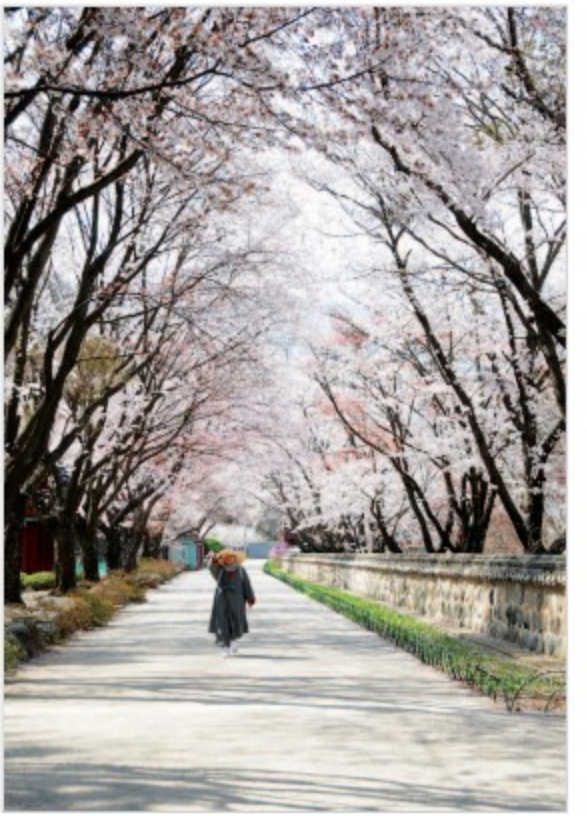
지면 제한을 감안하여, 한 가지만 지적해보자. 불교인, 특히 승려들은 과거에 비해 '나'의 문제에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개인 위주의 수행을 강조하고 속세 문제에 대해 침묵이나 무관심이나 외면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토' 속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 수행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라는, 그리고 출가 자체를 '과거 인연과 단절하여 나를 찾는 계기'로 간주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출가 이후의 삶이 '인연의 단절'인가?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만남'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출가 이후에도 다른 인연과 만나는 현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출가 이후에도 내가 살아가는 한, 인연은 '나와 떨어지지 않는 존재'이다. 나와 인연의 관계망을 일컫는 표현이 '사회'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존재, 상의상존相依相存, 연기緣起, 인드라망이나 회진향속回眞向俗, 회지향비回智向悲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불교인에게 인연(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등한시 될 수 없을 것이다. 내 안의 연꽃도 내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중생과 수행의 중요성을 역전시켜본다는 차원에서 대승불교의 교육이념이자 보살의 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도 '상화중생 하구보리'라고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이상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수긍된다면 '강정마을 사태에서 발현되는 숨소리에 대해 불교인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수준의 불교적 평화 또는 불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독자의 몫이 될 것이다.

4) 「강정에 놀러앉은 평화순례 '강정서 마침표'」, 『한겨레』, 2012. 02. 16.
5) 「강정마을회, 구럼비 바위 무단침입 법적근거 공개질의」, 『뉴시스』, 2012. 02. 15.
6) 「아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 『뉴시스』, 2012. 02. 16. ; 「함세웅 신부 "강정 해군기지, 무모한 일"」, 『머니투데이』, 2012. 02. 16.
7) 「제4차 평화비행기 18일 제주로 강정으로」, 『제주의 소리』, 2012. 02. 15.
8) 「평화 일은 4년…강정마을은 지금 폭풍전야」, 『한겨레』, 2011. 07. 26.

늦깎이 출가자의 변명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 안 들고 맑은 행실 닦고 닦아…"

동진童眞출가는 출가자의 꿈이다. 이산 혜연 선사의 발원문을 읽거나 외우면서 한숨을 내쉬어본 늦깎이들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늦깎이들은 서럽다. 남이 주는 서러움, 스스로 느끼는 서러움이 겹친다. 서러움은 행자시절부터 시작된다. 사십 넘어 간신히 출가를 단행했는데, '뭐하다가 이제야 왔누….', '예전엔 스물만 넘어도 늦깎이였는데 좋은 시절이야….' 란 말과 눈길에 주눅든다. 배우고 외워야 할 『초발심자경문』도 난관이다. 한자사

전 속의 깨알 같은 글자들은 침침한 절집 불빛 속에 잘 보이지도 않고, 옆의 젊은 행자 도반은 술술 잘만 외워 어른스님 앞에서 척척 강을 잘 바치는데, 나이 든 행자는 책을 놓고 돌아서면 까마득하기만 한 남의 나라 이야기다. 어설퍼서 저지른 잘못에 눈물 뚝뚝 떨구며 고개 숙이는 어린 행자를 어른스님은 운다고 뭐라 하시면서도 눈길은 애잔해 하시는데 나이 든 행자는 차마 울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걱정을 받아내야 한다.

강원에 와서도 서러움은 깊어진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픈 치문 습의의 계절. 재빠르고 똘똘한 어린 스님들도 힘겨운 첫 철에, 변화된 상황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늦깎이는 더 구박덩이다. "스님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몰라요."하는 어린 상반 스님의 야무진 걱정소리에 속으로 아파야 한다. 그래도 슬슬 몸과 마음이 익어 가면 그제서야 주변이 눈에 보이면서 반 스님들도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저 이산 혜연 선사의 발원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게 된다. '내가 왜 이제야 출가했던고, 내생엔 꼭!' 을 외치게 하는 것이 한 반의 동진출가 스님들이다.

동진출가자들은 일단 이리다. 그리고 어여쁘다. 생김새도 행동거지도. 무엇을 해도 아직은 속俗스럽고 머트로운 일반 출가자들에 비해, 무엇을 해도 매끄럽고 익숙하다. 손길 하나, 눈길 하나, 옷 입은 매무새도 남다르게 얌전하고 단정하다. 어른스님 시봉이면 시봉, 울력이면 울력, 절집에서 하는 온갖 잡일에 척척이다. 당연하지 않는가. 그들 나이 이제 스물 둘 셋이지만 절집에 산 나이는 십년 이십년이다! 늦깎이에겐 도통 모를 이 절집의 생소한 규칙(그런 것이 대놓고 있기라도 하다면!) 속을 그들은 물속의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헤엄쳐 다닌다.

또한 마음은 얼마나 예쁜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절집의 마음가짐이 그들에겐 이미 갖추어져 있다. 사회의 각박한 생존경쟁 속에서 거칠어진 늦깎이의 마음은 출가했다고 해서 금방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사십년 익어진 습習대로 저도 모르게 제 살 길부터 먼저 생각한다. 남 탓하고, 제 생각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제대로 귀에 담지 않는다. 그래도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 건지는 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서, 한 철 고생한 소임자 도반 스님을 위해 병원 출타 길에 케이크 네 조각을 사와서 하나씩 건네주는 막내 스님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고 부러워서 혼자 벽 보고 한탄한다. 내가 왜 이제야 출가했던고!

동진 스님들에 대한 가장 큰 부러움은 뭐니 뭐니 해도 염불이다. 염불이야말로 '스님네들의 꽃!'이라고 할 만큼 아직은 스님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량이다. 어차피 도통한 도인이 아닌 바에야 인격으로 사람을 교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염불은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신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밖에서도 창가락 조의 노래를 많이 듣고 불렀으니 염불이 낯설지 않아 금방 익어지지만, 요즘에야 힙합 듣고 랩 듣다가 출가하니 염불이 고난이도의 난코스다. 특히 늦깎이들에겐……. 과거세에 선근이 있어 처음부터 묵은 염불 소리를 내는 출가자도 있다지만, 참 드문 일이다. 과거에 선근이 있었다면 일찍 출가했겠지 왜 이제야 왔을까. 그나마 노래를 즐겨 노래방에라도 자주 다녔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그래도 노래 부르듯 염불한다고 걱정을 듣는다. 그러니 마지못해 노래방 끌려가서 돈 대주고 탬버린 쳐 주던 늦깎이야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동진출가들은 어려서부터 자장가 삼아 들은 게 염불이요, 동요 삼아 부른 게 염불이니 그 소리가 남다르다. 자기 집에서 철야 정진할 때 법당에서 놀다가 잠이 들곤 했다는 동진 스님 말에 그 스님 염불 소리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은지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늦깎이에게도 할 말이 있다.

세속의 시간도 시간이고, 시간은 누구의 삶에나 경험을 통한 지혜를 약간은 베풀어준다. 절집에서 말하는 세속지世俗智이다. 늦깎이들은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겪은 일이 많다. 절박한 생존의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기에 그 시간만큼 배워온 것이 있다. 물론 그것이 때로 아집과 교만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고, 대중의 조화로운 삶에 걸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른스님들은 예로부터 동진들보다 늦깎이들에게 더 엄격하신 것이리라.

그래도 요즘처럼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절집이 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세속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절집에서 자란 동진 출가들은 세상살이의 고통과 기쁨, 욕망, 그 인간적인 시간을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 배운다. 그리고 때론 드라마나 책은 세상을 아름답게 왜곡하거나 추하게 과장하기도 한다.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 맛을 아는 건 아니지만, 마셔 본 적이 많을수록 모든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제대로 알지 않겠는가.

더 중요한 점은 출리出離의 경험이다. 출가란 집으로 상징되는 세간으로부터 떠나는 일이다. 출가자는 출세간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음으로써 과거의 인연을 끊는 것이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은 세상은 이전 세상과 너무나 달라서 온갖 실수를 연발하고 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을 익혀간다. 그래서 출가가 늦을수록 적응이 힘들고, 과거에 익힌 자신을 버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늦깎이들은 스스로 선택하였다. 익숙해진 자신, 바깥 생활의 편안함, 소중한 인연들을 놓아두고 출가의 길을 감행했다. 때론 생살을 찢는 듯 고통스런 이별의 길이기도 하다. 그 시초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반면 동진들에게 출가란 그 의미가 좀 다르다. 발심보다는 자연스런 출가일 경우가 많다. 절집에서 살다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출가하기도 한다. 나쁘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선근善根일지도 모른다. 누군들 소중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며 떠나고 싶겠는가. 하지만 수승한 선근으로 인해 그들에겐 출리의 경험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옛날에 비해 훨씬 더 달콤해진 세상의 유혹과 홀로 마주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 유혹이란 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를 때는 더욱 벗어나기 어렵다.

아직 이 절집은 세간이다. 출세간이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세간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머리 깎고 먹물 옷 입는다고 도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세간을 구해 절집으로 출가한 늦깎이도 또 다른 세간으로 출가한 것뿐이다. 절집에서 살다 절집으로 출가한 동진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마음속의 일, 출리의 경험은 늦깎이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 남는다. 출산의 고통을 통해 여자가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듯 출리의 고통을 통해 늦깎이는 수행자로 거듭 태어난다. 문자 공부도 고달프고, 행동거지도 머트럽고, 염불도 신통치 않지만, 늦깎이에게 그것은 큰 힘이요, 재산이다. 수행의 길에서 닥쳐올 여러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그것은 수행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 줄 것이다.

*이 글은 익명의 학인스님이 투고한 글입니다.

담장 밖의 봄

봄비 맞으러 포행 간 날

- 대혜종고 선사 만나기 -

감응 / 사집과

운문사를 병풍처럼 휘두른 산이 연녹색 옷을 입고 있다.
겨울은 가고 이렇게 봄은 또 왔다.
나무마다 꽃봉오리가 맺힌 걸 보니 나의 마음에도 초심이 다시 새겨진다.

행자 때 '『서장書狀』을 배우면 참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신심이 저절로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레던 기억이 있다. 강원에 와서 우연치 않게 보조 국사의 말씀 중에 '『서장』을 벗 삼아라.' 라는 언구를 보는 순간 『서장』에 대한 나의 궁금증과 기대는 더욱 커졌다. 『서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조급한 마음에 이번이 기회다 싶어 대혜종고 선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선사는 오직 『서장』이라는 것밖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책 머리말마다 극찬을 한다. 내 마음속에 에너지를 불어 넣는다.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대혜종고 선사(1089-1163)는 임제종 양기파로 묵조선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주장했기 때문에 간화선의 맥을 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중요시여길 수밖에 없다. 그는 송나라 때 사람으로 이름은 종고宗杲이고 자는 담회曇晦이다. 호는 묘희妙喜 또는 운문雲門이라 한다. 선사가 어려서 향교에 다닐 때 이야기다. 친구들과 장난하다가 벼루를 잘못 던져서 선생님 모자를 맞혔다. 대가를 보상하고 집에 돌아와 탄식하길 "세속의 책을 읽는 것보다 출세간의 법을 연구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세간의 회의를 느끼며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선사는 결국 16세에 생사를 벗어나는 길로 향하게 된다. 출가해서 혼자 선에 관한 서적을 읽었고 특히 운문목주의 설화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 후 제방을 유랑하다가 담당문준 스님 아래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문준 스님께서 원오극근 선사를 찾아가라고 유훈을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37세가 되어서 원오 선사를 만나게 된다. 만난 지 40일쯤 지나서 우연히 원오 선사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어느 스님이 운문에게 "어느 곳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하니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다."라고 답했다. 원오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훈풍자남래薰風自南來 전각미량생殿閣微涼生이라고 하겠다." 대혜 선사는 이 설법에서 강한 충격을 받고, "'동산수상행' 과 '훈풍자남래 전각미량생' 이 두 가지 대답이 어떻게 다르겠는가!"하며 깨우쳤다. 그 후 "유구有句, 무구無句는 칡넝쿨이 나무에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다."는 화두를 참구하여 정진한 지 반년 만에 대오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서원을 새긴다. "차라리 이 몸이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결코 불법을 인정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 후 몇 년 뒤, 금金나라의 침략으로 나라는 유 · 불의 감정대립 때문에 평온치 않은 시기가 왔다. 대혜 선사는 사대부들을 상대로 단련하며 교화를

시작하는데, 이 때 선사는 종교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종풍을 드날리게 된다. 그러나 선사와 사상이 다른 강화론자들이 금나라와 계합하면서 조정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유배를 갔어도 선사를 따르는 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를 구할 정도로 교화는 더 멀리 퍼져나갔다. 16년간의 유배를 마치고 경산사에 머물면서 원오 선사의 종지를 크게 펼쳐나갔다. 선사는 왕 효종제에게 불법이 영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물러서겠다는 편지글을 보낸 뒤, 몇 달 후 세수 75세로 생을 마친다.

『서장』은 대혜 선사가 유배지에 있을 때 사대부들의 선공부에 대한 질문에 답한 편지글을 모은 것으로 선의 요지가 담겨있다. 선에 대한 지도가 한 문단도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신심을 일으켰고, 공부에 도움 되길 바라는 간절함과 세밀함이 느껴졌다. 또 부처님 말씀부터 제자백가의 언구까지 인용하는 자유 자재함을 볼 수 있었다. 보조 국사의 『서장』을 벗 삼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였다.

하지만 답답하기 만한 마음속. 선에 다가갈수록 멀어져가는 느낌. 물음표만 더해졌다. 집중을 하려고 시끄러운 곳을 떠나 고요한 곳을 찾아가 『서장』 책을 다시 한번 보는데 무릎을 치게 만드는 구절… 내 모습을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구절…

"헛똑똑이들은 대다수 시끄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언뜻 삿된 무리들의 지시로 고요히 앉아 색다른 경험을 하면 바로 만족하여 다시 오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잠잠히 말없는 것을 가지고 더할 나위 없는 법칙으로 삼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닌 진정으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요함은 옳고, 시끄러운 것은 그름으로 삼는다면 세간을 벗어나서 도를 구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고요한 곳을 찾아 좌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내 마음속의 분별이었다는 걸 다음 글이 확신시켜주었다.

"시끄러운 곳에서 바로 공부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고요한 곳에 마음을 두는 까닭이 바로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을 쓰려는 것입니다. 만약 시끄러운 곳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면 거꾸로 이는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선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는 일상 가운데서 단지 화두만 들면 된다고 말한다. 즉, 공부에 대한 지극한 마음만 있다면 장애 될 것이 없다는 것까지.

혼자만의 『서장』 공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멈추어져 있던 내 머릿속을 회전하면서 사유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또 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자세까지 되돌아보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겨울에 봄비를 주어 내 마음속에 때 아닌 새싹이 틔었다.

"무릇 구하는 바 이루지 못할게 없던 것은 모든 지극한 정성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비 그친 운문사에서

규현 / 사미니과

며칠 사이 비가 계속 내려서 도량 내에 여기저기 발밑에 물웅덩이가 많습니다. 그런 웅덩이들을 피해서 불편한 발걸음을 바삐 놀리던 중 문득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경이었습니다. 굽이진 호거산 산자락 여기저기에 하얗고 몽실몽실한 구름들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가 와서 불편하다고, 빨리 해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그래서 운문사雲門寺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제가 운문사에 오게 된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안 내키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려 운문사로 향하고 보니 어느 순간 운문사 속에 있는 제가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의 불편했던 감정들이 호거산 자락의 구름을 보고 물웅덩이의 불편함을 잊듯 그렇게 잊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운문사에 오길 잘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운문사와 제 인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운문사는 출가를 결심하고 처음 발걸음한 곳이고, 절집 생활을 직접 체험한 후 출가 의지를 확고히 한 곳이기도 하며, 지금의 본사와 인연을 맺게 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기에 입학을 앞두고 운문사에서의 생활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고즈넉한 운문사에서 꿈같은 추억들이 현실의 고달픔으로 인해 빛이 바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입학하게 된 운문사에서의 생활에 대해 지금은 익숙한 기대감으로 설레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처음 출가를 결심했을 때의 설렘과도 닮은 그 감정으로 운문사의 하루하루가 두근두근합니다.

방황하던 대학 재학시절,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북함이 문득문득 치솟던 그때, 우연히 방문한 해인사 약수암 방 한켠에서 낯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의 반짝임이 되살아났습니다. 눈 내리는 설산과 바람에 사락거리는 대나무 소리에서 드디어 마음의 평온을 얻었던 그때의 환희심을 기억해냈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감 이면에는 낯선 운문사 대중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 또한 있었습니다. 운문사에 들어오면서 걱정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도반스님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튀는 도반스님이 있으면 반 전체가 벌罰 소임을 피할 수 없다던데…' 등과 같은 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20여일 정도를 살아보니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정도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는데, 부디 이대로 쭉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운문사 입학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이 앞으로의 중衆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긴장도 됩니다만, 강원생활에 하나하나 적응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에 기죽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익히겠습니다. 조바심이나 분심을 내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또한 재밌고 재밌게 운문사 생활을 즐기겠습니다.

4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훗날 돌이켰을 때, 후회나 반성을 하기보다는, 소리 없이 미소지을 수 있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소중한 추억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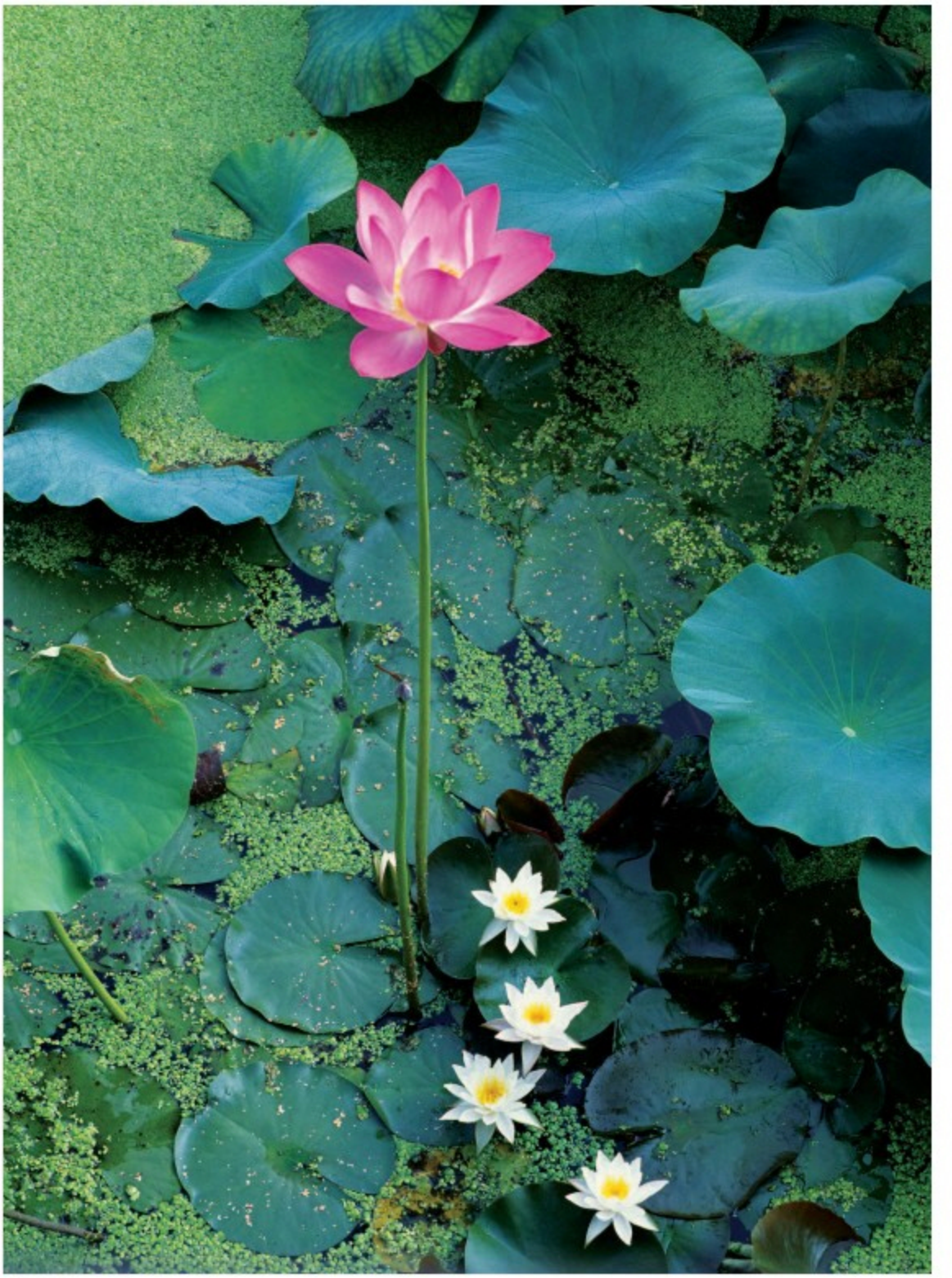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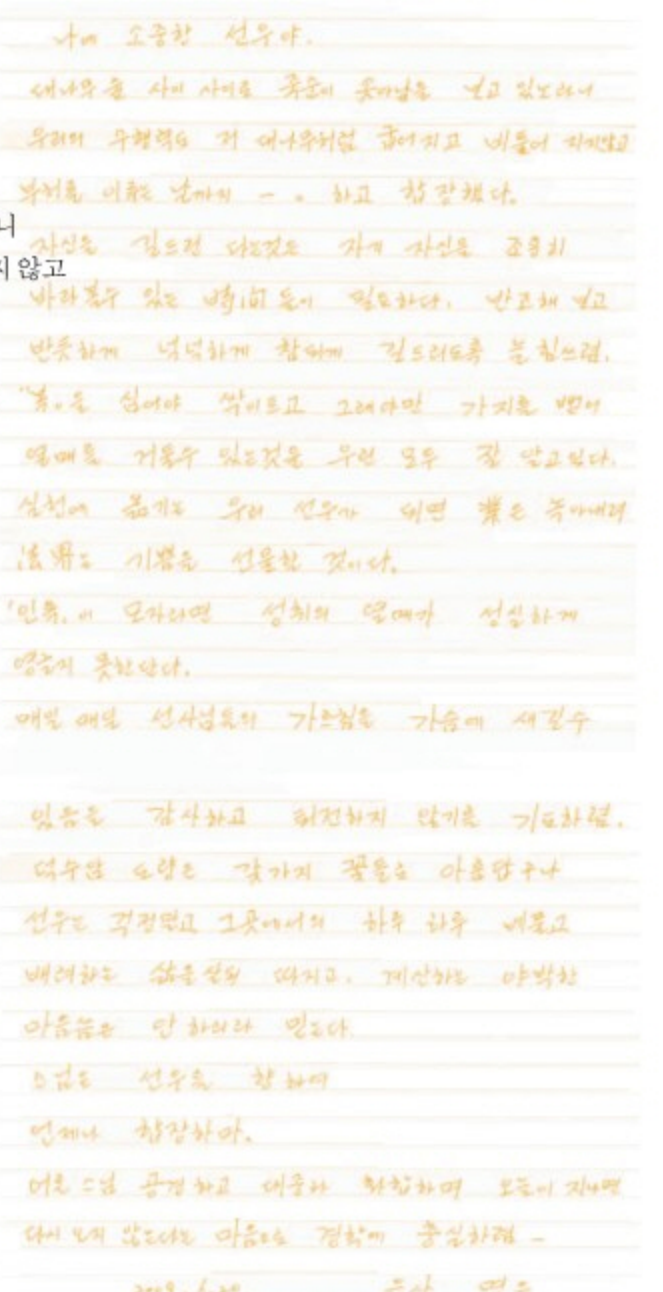


사진 장국현

상좌 선우에게

나에 소중한 선우야
대나무 숲 사이 사이로 죽순이 솟아남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의 수행력도 저 대나무처럼 굽어지고 비틀어 지지 않고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하고 합장했다.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時間들이 필요하다. 반조해 보고
반듯하게 넉넉하게 참되게 길들이도록 늘 힘쓰렴.
"복"을 심어야 싹이 트고 그래야만 가지를 뻗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린 모두 잘 알고 있다.
실천에 옮기는 우리 선우가 되면 업業은 녹아내려
법계法界는 기쁨을 선물할 것이다.
'인욕'이 모자라면 성취의 열매가 성실하게
영글지 못한단다.
매일 매일 선사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퇴전하지 않기를 기도하렴.
덕수암 도량은 갖가지 꽃으로 아름답구나.
선우는 걱정 말고
그곳에서의 하루 하루 베풀고 배려하는 삶을 살되
따지고, 계산하는 야박한 마음씀은 안하리라 믿는다.
스님은 선우를 향하여
언제나 합장하마.
어른 스님 공경하고 대중과 화합하며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경학에 충실하렴.

2009. 6. 20. 은사 명은



어장스님의 원력

– 홍원사 동주 원명 스님을 뵙고 –

만경 / 대교과

그 옛날 영산회상에서 묘음보살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속 솟구치는 환희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음성공양을 올린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범패. 부처님을 향한 최고의 환희심과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맺힌 것을 풀고 새로운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 있던 중 조계종 초대 어장魚丈(불교의식을 일컫는 어산魚山의 장丈, 즉 어산의 최고 어른을 지칭하는 말)이시며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의 학장이신 동주 원명 스님을 찾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우리 일행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여정을 떠났다.

남방불교사원 형식의 서울 홍원사에 도착, 마침 동짓날이라 정갈한 팥죽을 대접받고 스님이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들어요, 내가 대만에서 직접 구해온 차야."

웃으시는 모습이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고 인자하시다. 스님의 미소에 힘입어 그동안 궁금했던 몇 가지를 여쭤보았다.

현재 저희가 행하고 있는 의식의 유래나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의식은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불교의 의식은 2600여 년간 덧붙여지며 방대한 분량이 되었으나 정통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의식 간소화로 인해 많이 없어져 안타깝지요. 묘음보살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범패의 시원이기도 하고, 원래 바라문교에서 행하던 것이라 부처님이 처음엔 금하셨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환희로워지자 나중엔 허용하셨어요. 이것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적 음악인 범패입니다.

범패와 어산魚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도의 범패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적으로 발전한 것이 어산입니다. 한창 경전의 한역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찬가를 중국식 찬가인 한찬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새로운 범패가 탄생하였지요.

또 『불조통기』에서 진사왕 조식(조조의 넷째 아들)이 불경을 읽을 때마다 홀연히 불도의 궁극적 극치를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탄식하며 지금의 산둥성 지닝주에 있는 위산에 머무를 때 공중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는데 때마침 호수에서 물고기 노니는 모습을 보고 음악적 영감을 얻어, 안으로 그 소리를 본떠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

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전해진 범패는 당에 유학 갔던 진감 선사가 신라로 돌아오며 전하게 되었고, 한창 성행하다 조선시대에 와서 억불숭유정책을 만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다 일제강점기시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정신 말살정책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고, 한국전쟁과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거치면서 조계종에서는 완전히 그 맥을 찾기 힘들었지요. 내가 20대이던 당시, 염불한다하면 무시와 멸시를 받기 일쑤였어요.

한국 범패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먼저 알아보았지요. 1960년대에 서구로 음악 공부를 떠났던 유학생들이 우연찮게 범패를 들었다가 서구 사회에 소개되었고 그곳의 음악 대가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받게 되었어요. 동양의 신비한 소리로 범패가 널리 소개된 것도 이 무렵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중요성에 비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스님들에게조차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옛날의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 의식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패를 익히고 닦는 것이 곧 중노릇하는 길입니다. 염불을 해야 중물이 든다했지요. 뭇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편견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불교 고유의 음악, 2600여년의 역사가 숨쉬는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범패는 범천의 음악, 천상의 소리라 하지요. 또 우리나라 국악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맥이 끊어지지 않게 후대에 계승하는 데 모두 힘써야 합니다.

의식을 전승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원래는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은사스님(대은소하 스님)은 교학에 밝은 대강백이었습니다. 비구니 도량인 용인 화운사를 비롯해 서울에만 10여 곳의 사찰에서 강의를 할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 저도 은사스님을 좇아 교학공부에 뜻을 두었지요. 하지만 그전에 은사스님의 '염불해야 중물 든다'는 생각에 의해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신 송암 스님께 염불을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엔 3개월 동안 기본을 배울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 후, 마치고 가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하는데 그전에 은사스님께서 송암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탑골승방(서울 보문사)에서 은사스님은 비구니스님들에게 경전 강의를, 송암 스님은 의례를 가르치고 계셨지요. 송암 스님께 갔더니 스님이 대뜸 나보고 "너희 은사스님이 미쳤나보다."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우리 스님(은사스님)이 송암 스님보다 20년 앞섰는데 송암 스님께 절을 하며 나를 참회제자로 받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해 주길 부탁하셨답니다. 그 길로 송암 스님의 참회상좌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영산작법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결심으로 원력을 다시 세우고 배우기 시작했지요. 맥을 이으려면 남도 가르쳐야 하니까 그 생각에 한마디 한마디 정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송암 스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면 됐다"하셔도 내가 미흡한 느낌이 들면 더 정확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습했지요. 연습한 다음날 함께 배우는 다른 스님들도 다같이 모여 송암 스님이 연습한 걸 한번 해 보라 시키시면 대번에 얼마나 연습했는지 티가 났어요. 그런 나를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모든 것을 고스란히 알려 주신 건 나뿐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기도를 하러 가게 되셔도 1순위로 나를 데려 가셨지요. 혼자 백 번 연습하는 것보다 스승 앞에서 열 번 하는 것이 낫고, 스승 앞에서 열 번 하는 것보다 사찰에서 실제로 한 번 시연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스님과 신도들의 눈보다 더 무서운 스승은 없지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릴 수 밖에요. 그러면서 현장감을 많이 익혔지요.

범패는 배우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배울 적에도 소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소리 곡절이 아주 미묘해서 내가 소리가 너무 어렵다 했더니 송암 스님께서 범패란 범천의 음이라 하늘에서 천상인들이 부처님께 음성으로 공양 올리는 소리라 인간이 흉내내기 어려운 것이라 했습니다. 염불의 뜻도 모르고 소리에 얽매여 배우다가 선방에 가게 되었지요. 선방 가고 싶은 마음에 더 빨리 배웠어요. 다른 이들보다 3배 이상 연습했습니다. 선방이 너무 가고 싶은데 중간에 뿌리칠 수 없어 끝나자마자 스님께 선방으로 갈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는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군요. 그러다 이내 '공부하러 간다는 사람 붙잡으면 안 된다, 여기 자주 올 생각 말고 공부에 매진하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선방에 있는 동안 배운 염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제철 혼자 산사에서 부르는데 배울 땐 몰랐으나 선방에 가니 염불이 선정의 극치에서 나오는 소리임을 알았지요. 한 생각 번뇌 망상이라도 일면 소리가 흩어지고 갈라집니다. 삼매에 들어야 제대로 된 운율이 따르지요. 그만큼 온 마음 온 정신을 다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홍원사에 전승원을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가받았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조계종 어산작법학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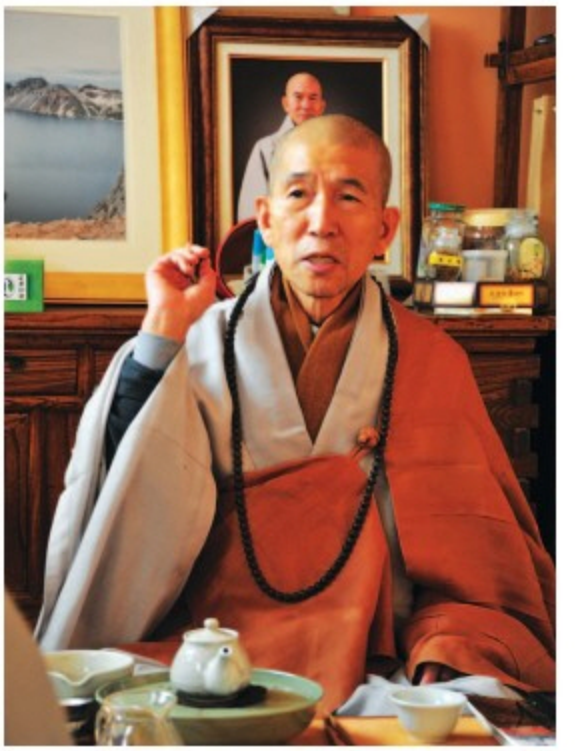
후학양성에 원력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것은 같으나 어산작법학교를 종립이라 한다면 전승원은 사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3~5년간 수업하던 것과 달리 전승원에서는 전문 과정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의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후 연구, 기능과정에 가서 수륙재에 대해 심화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륙재 의식을 복원해 단절위기에 처한 수륙재 소리의 맥을 잇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요. 그리고 종단의 교육원, 포교원, 의례위원회와 연계해 내용은 한글로 하고 곡조는 전통의식에 맞춘 한글염불의례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여러 염불교육기관이 있지만 우리 전승원은 차별성을 가지고 현대의 근기에 맞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염불을 우선 교육할 생각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교리가 최고로 발달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조사어록 등등의 골자를 뽑아 나오는 것이니 만큼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 올바른 뜻으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고급까지 올라가는 전문성을 갖춘 후계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학인스님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고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은 계행이 청정하고 수행력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를 옳게 새기지 못해 소리로만 읊는다면 앵무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송문관의誦文觀意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경문을 외우면서 그 뜻을 관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초부터 정확히, 또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스님들입니다. 불교의식의 2600여년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승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아직 새내기인 우리들에게 어장스님께서는 손주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렇게 본인이 살아오신, 불교의식의 복원에 힘쓴 지나간 역동적인 나날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셨다. 후제양성과 불교의식의 맥 전수를 위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어른스님들의 후배사랑에 발맞춰 우리도 정진 또 정진해 나갈 일이다.

동주원명 스님은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계단위원, 성보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2006년 조계종 초대 어산장에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 홍원사 회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다.

사찰음식에서
천상의 음식으로 탈바꿈하다

—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 —

보원 / 사교과

"생명존중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찰음식은 가장 정갈하고 순수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한 끼 밥상을 통해 우주를 다 느낄 수 있어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한국불교 문화 체험 전시 개막 리셉션'에서 한 대안 스님의 말씀이다. 이제는 사찰음식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주저없이 떠올려지는 스님은 프랑스의 손꼽히는 백화점에 한국 사찰음식 전문식당 입점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까지 올렸다.

여기저기 쏟아지는 강의와 인터뷰, 사찰주지의 소임… 빽빽한 일정…. 스님은 현재 스님들이 바깥에서 공양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한국 불교의 중심지인 조계사 앞에 '발우공양'이라는 사찰전문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곳의 총책임자로 있는 스님께 사찰음식의 중요성과 음식에 대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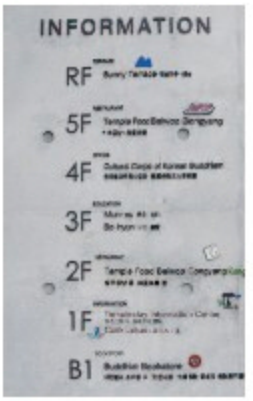
스님의 사찰음식과의 인연은 출가를 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85년 해인사로 출가해 채공(반찬 만드는 일) 소임을 맡고, 절집 울타리 안에서 노스님, 어른스님들께 간장, 된장, 김치 담그는 방법 등 사찰 음식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요리법을 익혔다고 한다.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에 매료

되어 스스로 하나 둘씩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다 보니 그 종류만 해도 400가지가 넘게 되었고, 사찰 음식이 바로 '자연의 맛' 임을 확신하였다 한다. 동시에 이러한 맛과 문화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중이라고 말한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성본은 없듯이 전통사찰음식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시작한 일은 식재료 엄선에서부터 메뉴개발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한다. 방부제와 화학조미료가 다수인 현실에서, 또한 맛의 밀집이라는 종로 한복판에서 자연의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재배한 유기농 식재료의 공급,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메뉴개발로 인해 차츰 한 단계 한 단계 정리되면서 사찰 음식의 본래 면목을 일반 대중에게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어떠한 생명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먹고, 수행자들이 계율을 잘 지켜가며 수행하는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스님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먹을 때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음식에 만족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고객이 되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가했을 때의 단호한 그 마음가짐처럼 이 음식을 먹고 불도佛道를 이루겠다는 서원으로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계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단순히 먹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살피고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음식을 먹는 것은 불교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찰음식도 유네스코(Unesco)에 등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수행자의 음식' 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음식의 경계,



즉 바깥 세계에서도 수행자가 비빔밥 한 그릇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이제는 이루어진 것이다.

그 활발한 활동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전통사찰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스님의 포부가 궁금해졌다. 퓨전이라는 화려한 육해공陸海空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촉각은 어떠할까? 혹여 푸성귀만 가득하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많지는 않을까? 하지만 염려했던 바와 달리 사실 전통사찰음식은 외국인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우선 냄새나는 마늘, 파와 같은 자극적인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 하나하나의 특유의 담백한 맛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인식을 남기게 된다고 말한다.

"지금은 불교의 전성기에요."라고 자신 있게 세계화의 포부를 밝힌 것처럼 전세계적인 한국 사찰음식의 대중화도 머지않았음을 스스로 직감해 본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았다.

"우리는 중생심에 가려져 있지만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벗겨집니다.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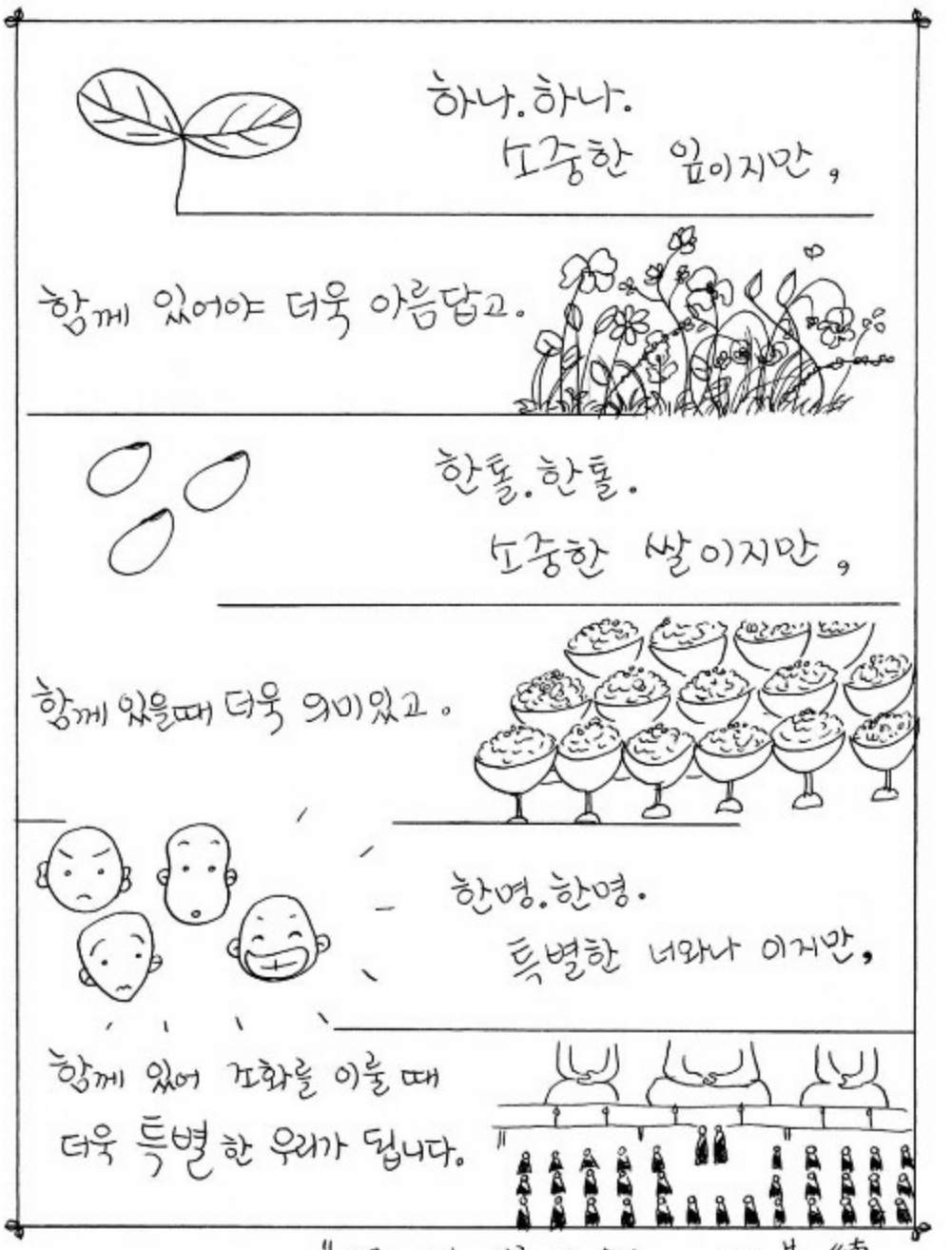
출가자들이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번뇌가 따르지만 깨우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으로 인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 중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식욕입니다. 자제력을 키워야 해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중생심이 괜한 불안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발심이 되면 아상我相이 사라지듯이 무아無我를 체득하면 아무런 걸림이 없게 되지요. 그냥 겪으면 됩니다. 겪고 나면 고하의 정도는 있지만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출가할 때의 그 단호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발심의 에너지인 것이죠.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떳떳해지세요."

계공다소 양피래처計功多少 量彼來處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촌기덕행 전결응공忖己德行 全缺應供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방심리과 탐등위종防心離過 貪等爲宗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정사양약 위료형고正思良藥 爲療形枯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위성도업 응수차식爲成道業 應受此食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공양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야 할 다섯 가지 오관게五觀偈이다. 공양하기 전에 합장하고 정중하게 예를 올리며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단호한 마음가짐, 즉 발심의 에너지인 것이다. 이번 대안 스님의 좋은 말씀으로 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본다. 겪으면 다 체득하게 된다. 목적지까지…. ㉮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혜덕 / 사교과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2012. 봄 惠德.

삶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

–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를 읽고 –

일광 / 한문불전연구원

언젠가 보았던 '인생'이라는 영화는 이 시대를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 하나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세월 속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남겼던 이 영화의 작가가 바로 「허삼관 매혈기」를 쓴 '위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위화는 현존하는 중국작가 중 노벨문학상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세계가 사랑하는 소설가다. 작가 위화는 허구 속 인물인 허삼관을 통해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문화적 보편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허삼관 매혈기」는 '인생'과 같은 시대 배경으로 '매혈賣血' 즉 피를 팔아 얻은 돈으로 결혼을 하고 평생 가족을 부양해가는 한 남자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다. 피를 판다는 다소 황당한 제목으로 다가왔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주인공의 능청스럽고 순박함, 적당히 선하면서도 적당히 게으른 성격, 또 밉지 않은 우격다짐의 말투 등이 시종 웃음과 눈물을 자아낸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언젠가 보란 듯이 강자로 우뚝 서고 싶지만 현실에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 이야기 같아 짠하고 그러면서도 웃긴다. 국내 어떤 소설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읽는 사람의 혼을 쏙 빼는 책'이라 했다. 물론 동감한다.

주인공 허삼관이 사는 마을에선 피를 팔아본 사람이라야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피를 파는 사람들의 대화가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판 건 힘이라구… 힘에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피에서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살에서 나오는 힘이야…… 우리가 잠자고 밥 먹고… 별로 힘쓸 필요도 없는 일이지. 이런게 살에서 나오는 힘이야. 자네가 논밭에서 일을 하거나 백여 근쯤 되는 짐을 메고 성안으로 들어갈 땐 힘을 써야 한단 말씀이야. 이런 힘은 다 핏속에서 나오는 거라구…."

허삼관은 처음 피를 판 돈으로 아내를 얻고 세 아들을 낳고 살면서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피를 팔아 가족을 부양해 간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한한 가족애를 갖고 있다. 첫째아들 일락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도 자기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 허삼관의 매혈 행로의 압권은 간염에 걸린 일락이를 살리기 위해 상하이까지 가면서 10일 동안 4번의 피를 팔 때이다. 피를 팔다가는 쓰러져 자신이 오히려 수혈을 받게 된다. 그래서 두 번 피 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지경에 처한다. 이 대목은 웃기면서도 가슴이 아린다.

"일락아, 오늘 내가 한 말 기억해둬라.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난 나중에 네가 나한테 뭘 해 줄거라 기대 안한다. 그냥 내가 늙어서 죽을 때 그저 널 키운 걸 생각해서 가슴이 좀 북받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주인공 허삼관은 때때로 양심에 대한 말을 자주한다. 비록 양식조차 구하기 어려워도 그럴수록 양심만큼은 가난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상 깊은 장면 하나는 허삼관의 생일날, 먹을 것이 없어 옥수수죽으로 때우고 밤에 침대에 누워 아내와 세 아들에게 한사람씩 각자가 원하는 요리를 말로써 해주는 대목이 있다. 상상으로만 만들고 상상으로만 먹는 가족들의 행복감이 어떤 요리를 먹는 것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작가의 재치로 너무나 슬픈 비극이 미소를 짓게 한다.

그렇게 평생 피를 팔다 어느새 예순 살이 된 허삼관, 세 아들은 모두 결혼해 생활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위화
그가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건네는 따뜻한 황주 한잔

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어느 날 옛날 먹었던 음식 생각에 피를 팔려하니 너무 늙었다고 거절당한다. 문득 쓸모없게 된 처지를 서러워하고 소리 내 울자 동네사람들이 가족에게 알리고 그는 가족이 사주는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면서 소설은 끝난다.

작가는 이 소설이 '평등에 관한 이야기'라 했다. 허삼관은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남들도 같은 일을 당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 앞에 누구나 똑같이 서 있다. 행복은 반드시 불행과 함께 온다는 건 굳이 경전 속 얘기까지 들지 않아도 살아온 세월만큼 누구든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허삼관 매혈기』는 우리 인생에 즐비해 있는 불행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너무나 고된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허삼관의 사랑법은 매혈이었다. 극한적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피를 팔아 삶의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살아가기 위해, 그야말로 매혈에 목숨을 건 한 남자의 희비극이 교차하는 삶을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을 법한 여러 사건들로 풍자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려낸다. 솔직히 문화대혁명 속의 가족비판대회 같은 상황은 익히 중국영화에서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충격이지만 따뜻한 양심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안도감마저 든다. 역사라는 큰 벽 앞에서 힘없는 한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그 벽을 넘었는지 얘기해주는 이 소설은 2004년 우리나라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했다.

인생역정을 그린 소설은 수없이 많으나 절망적 삶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허삼관의 이야기는 왠지 나에겐 따뜻한 햇살 같게 느껴진다.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김연수 / 소설가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님네가 새집 구경을 왔다. 덕분에 세 식구가 살기에는 좀 크다 싶었던 집이 복작거려서 좋았다. 같은 동네에 사는 누나까지 오니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만 해도 형제가 셋이니까 아침에 밥을 먹을라치면 꽤 요란했다. 아버지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비둘기집'이라는 아침 연속극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육성회비를 달라는 둥, 콩자반에 질렸다는 둥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다. 내 기억에 어린 시절의 아침은 언제나 그처럼 분주했다.

지금은 다른 집과 비슷하게 우리 집에도 아이는 하나뿐이다. 그런 야단법석의 아침을 아이가 경험하기란 힘들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사촌들과 하루 종일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그 북적거림이 좀 피곤해지기 시작한 나와는 달리 아이는 사촌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에 오르는 사촌들에게 집에 가서 더 놀자고 간청했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는 이제 인사를 하라고 권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이는 끝내 인사를 하지 않았고, 자동차가 떠나자마자 엉엉 울어버렸다.

엉엉엉. 내 경험에 따르면 그럴 때 흘리는 눈물보다 가슴 아픈 눈물은 없었다. 그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게 뻔한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왜 이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할 수 없을까? 어린 시절, 친척들로 집안이 북적대던 명절을 보낸 뒤, 며칠 동안 우울한 마음에 젖어 있던 나 역시 그런 의문을 느끼곤 했었다. 나는 아이를 달랬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시간도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행복한 날이 하루라면 외로운 날도 하루라는, 그런 식으로 이 우주는 공평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수로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살아오면서 나도 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삶의 순간은 한 번만 우리에게 경험된다. 추억 속에서 그 순간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렬함은 점점 줄어든다. 아무리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비디오로 촬영해도 한 번 지나간 뒤의 일들은 더 이상 내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일을 배워야만 한다. 내 인생이 저마다 다른 나날들로 이뤄진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익혀야만 한다. 그럴 때, 내게 학교가 되는 건 숲이다. 숲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맑은 날씨가 사나흘 이어진다. 산벚나무 가지 어디선가 낯설게 생긴 새가 지저귄다. 그 날 하루는 맑으리라. 그러니 그 새소리에 내 마음은 평화롭다. 하지만 화창하던 하늘로 구름들이 몰려오면 모든 게 달라진다. 바람은 당장이라도 부러뜨릴 듯 나무를 뒤흔든다. 새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

는다. 당연히 노랫소리도 없다. 그런 날에 나무들은 그 험한 바람을 어떻게 견딜까? 새들과 그 지저귐은 어디에서 그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일까? 나무와 새들도 희망을 생각할까? 마치 우리처럼. 하지만 그럴 리가. 우리는 나무라면 가만히 곧추 선 나무를 떠올리지만, 나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같은 건 없으리라. 매일 날씨가 다르니 날마다 나무는 달라진다. 맑은 날의 나무와 흐린 날의 나무는 서로 다르다.

날씨는 매일매일 달라진다. 햇살이 눈부시다가 또 흐리다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다가 다시 훈풍이 불어오고 어느새 계절이 바뀐다.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거기 변하지 않는 하늘이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무와 새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희망은 달콤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원하는 자들을 늘 배신했다. 나무와 새들은 영영 맑은 날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자연적인 사실이 있어서 세찬 바람과 축축한 둥지를 견딜 수 있었으리라.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일은 지나간다는 그 자명한 사실 덕분에. 나무와 새들은 그 사실로 이뤄진 나날을 그저 겪을 뿐이다. 맑은 날에는 맑은 날을, 흐린 날에는 흐린 날을 겪는다. 우리도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몰아치는 바람 앞에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꼿꼿하게 서 있다면, 그건 마음이 병든 나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 순간 달라지는 세계에서는 우리 역시 변할 때 가장 건강하다. 단단할 때가 아니라 여릴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여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 여리다는 건 과거나 미래의 날씨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다. 나는 매 순간 변하는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그 날의 날씨를 최대한 즐기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건강한 마음이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다. 세상의 기쁨과 고통에 민감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 때로 즐거운 마음으로 조간신문을 펼쳤다가도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물론 마음이 약해졌을 때다. 하지만 그 약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가장 건강한 몸은 금방 지치는 몸이다. 자신은 지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한 것들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여리고, 쉽게 상처받고, 금방 지치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원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엉엉엉 울던 아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울음을 그치고 뭔하면서 놀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오리를 구경하기로 했다. 호수에 사는 오리는 볼 수 있는 날도 있고, 볼 수 없는 날도 있었다. 과연 오리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리를 보러 공원까지 갈 수는 있었다. 오리는 한참 지나서야 물풀 사이에서 뭍으로 걸어 나왔다. 밤이 되면 오리는 다시 어딘가로 숨어들어 잠들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에서 잠들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난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

김연수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 작가세계문학상에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가 당선되어 등단했고,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 〈원더보이〉, 소설집 〈나는 유령작가 입니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 등이 있습니다.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욕보살의 원력으로

증진 / 대교과

100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추위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듯하더니 어느새 도량 안에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시린 겨울 뒤에 따라오는 봄은 항상 반갑고 또 뭔가 설레게 만들어 주는 고맙고 감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운문사에서 맞는 네 번째 봄이 드디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걸 보면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나봅니다. 출가 후 2년 동안은 절에서 예불하고 노스님들 공양물 챙기고 또 후원에서 감자, 무만 깎던 제가 처음 강원에 와서는 한동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한 파트가 지나니 딴 세상에 온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수인계와 습의가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던지요. '운문사라면 다시 한번 강원을 가고 싶다.' 는 선방 스님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강요에 정말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입학을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치문의 꽃은 종두라는 선방스님들의 조언에 8명을 가위바위보로 이기고 종두 8대장이 되었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저의 강원생활은 날마다 스릴 넘치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잘 하려고 매달릴수록 사건, 사고 접수는 끊임이 없고 의도하지 않은 일엔 꼭 제 범명이 떡단 맨 위에 있었습니다. 초 단위로 움직이고 분 단위로 집합, 해산하는 것이 마치 세계 올림픽 육상선수와도 같아 제 심장은 한동안 뛰고 또 뛰었습니다. 동업중생이라고 했나요? 유독 저희 반에는 무지개빛깔의 다양한 캐릭터 스님들이 모여서 놀랄 일도 어찌나 많던지요. 이렇게 살다가 혹시 내 심장이 이대로 터져버릴까봐 조마조마해하면서 저 자신에게 큰 위로라도 하는 듯, 매일 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불 후에 꼭 집으로 돌아갈 거니

까 괜찮아…."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이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이부자리에 누운 뒤 1분만 지나면 이내 숙면을 취해 버리는 겁니다. 잠도 설치고 밥맛도 없어져야 마음정리 하기가 쉬울 텐데, 아무리 괴로워도 슬퍼도… 그렇게 울다가 1분만 지나면 바로 잠들어버려서 도반스님들한테 제 별명은 "1분 증진"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1분 만에 찾아오는 숙면 덕분으로 제가 아직까지 강원생활을 이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간당간당하던 제가 어느새 설현당으로 이사 온 걸 보면 참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는 좋은 옷, 맛난 음식, 멋진 차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높이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은사스님 신도의 딸로 20년 동안 절에 놀러만 다니다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부처님 가피 아래 평생 처음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몇 달을 절에 머물면서 그동안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꽉 찬 충만함이 주는 유혹에 못 이겨 소심하고 소심한 제가 드디어 겁도 없이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발심은 온데간데없고 말법시대에, 근기가 하열한 저에게는 강원 생활 자체가 곧 생사를 넘나드는 고된 날들이 돼버렸습니다. 대중을 모으는 힘이 화합이라 조금씩 획일적으로 맞추어 가다보니 그 사이에서 오해와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에 조금이라도 내게 피해가 생기면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자존심을 다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치문 가을 짧은 출타를 기회로 큰 결심을 하고 짐을 모조리 싸서 집으로 갔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뭔가를 읽으셨는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안했나보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며 특히 강원은 그 공부하기엔 최고의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그 특이한 사람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라고 원망만 했지, 제가 먼저 그 사람을 '특이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는 것이 부족한 저에게 운문사는 최고의 도량이며 수행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인욕의 공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론經論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보적경大寶積經』에서 인욕은 보살의 십력十力의 근본이요, 제불신통諸佛神通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덟 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첫째는 온갖 지혜의 힘이 되고, 둘째는 항상 자신을 수호하고, 셋째는 큰 투구(大鎧)의 구실을 하며, 넷째는 좋은 약(良藥)과 같고, 다섯째는 능히 이기는(勝) 힘이 되고, 여섯째는 보배를 간직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많은 것을 싣는 큰 배와 같고, 여덟째는 돌로써 닦은 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인욕수행은 수행의 시작이자 마지막 관문입니다. 비록 오랜 기간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순간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진심瞋心을 일으키면 그 동안의 공부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행자는 항상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남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던 사람이 뜻밖의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 순간의 모욕을 참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온갖 공덕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욕수행자는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결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해의 첫출발을 의미하는 봄입니다. 많은 대중스님들이 모인 지금, 다시 조금씩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인욕보살의 원력으로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지대방 조실

미가 / 사교과

'너는 운문사에 있는 2년 동안 무엇을 했니?' 나 자신에게 물어봤다. '글쎄….'

끈기가 없고 싫증을 잘 내는 나는 한 가지를 끝까지 완수한 적이 별로 없다. 출가하기 전부터 이런 버릇이 있던 나는 출가 후에도 여전히 안일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도반스님들을 보면 영어를 마스터하고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스님, 한문에 능통해 어떠한 경전을 보더라도 술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졸업할 것이라는 스님 등등 자기 나름대로 4년 동안의 계획과 포부들을 가지고 있다. 과연 나는 지나온 2년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사내대장부가 군대에서 철이 안 들면 한평생 철이 안 든다고 했듯 스님들 역시 강원에 있을 때 승려로서의 수행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평생 안일한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고 이런저런 망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나에게 소소하지만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있었다.

사집 겨울철, 운문사의 가장 큰 대중울력인 김장날. 치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울력도구를 준비하고 뛰어다니며 배추만 옮기면 됐는데 사집이 되니 치문반 스님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내 일까지 하려하니 몸이 두 배로 바빴다. 이렇게 여기저기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다 내리막길에서 다리를 삐끗했다. 그 순간 '아차!' 싶은 생각에 주저앉았지만 발을 몇 번 돌려보고 괜찮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울력을 시작했다. 울력하는 순간은 아픈 것도 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나름 뿌듯해 하며….

하지만 문제는 저녁때부터였다.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미련한 것일까? 오른쪽 발목이 부어있었다. 결국 다음날 도반스님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갔다. 인대가 늘어났다며 2주 정도 깁스를 하고 있으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깁스를 하고 운문사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난 '병고자'로서 지대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있을 만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의미하게 멍하니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반 스님들이 울력을 갔다 오는 것을 보며 며칠 전에는 그저 미안하기만 했던 나의 감정이 변해 점점 나 자신이 한심해지고 그저 숨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지금까지 너의 목표를 이룬 것이 몇 가지나 되니?' 라고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역시나 정확하지 않았다.

출가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 봤지만 기도도 완벽하게 끝낸 적이 별로 없었고, 공부도 그럭저럭이었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똑 부러지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언제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

적은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공부나 기도는 미뤄놓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던 나 자신에게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하지 않았던가? 남은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문득 하며 무언가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 경상에 앉아 독송을 했다. 그러나 평소 꾸준히 난자 공부를 하지 않았던지라 한자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 읽는게 우선이 아니구나.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먼저 찾아야겠다!' 몇 달 동안 나의 손길을 애달프게 기다리던 자전을 잡고 한자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을 보기 위해 시작했던 '난자찾기'가 한자를 많이 안다고 자만했었던 나 자신을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다. 난자를 찾으면서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그냥 안다고 넘어갔던 한자도 너무 많았다. 경상에 앉아있는 나를 보니 스스로도 어색했고, 도반들도 의아해하며 왜 안하던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왔다. 도반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공부를 안하긴 안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며 하루하루 나의 난자노트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노트가 한 장 한 장 채워져 나갈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나름대로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병고자 신세를 만들어 도반들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자꾸만 주눅이 들게 하는 나의 발목을 원망하고 싫어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고마운 경험이었다. 만약 그때 발목을 다치지 않았다면, 내가 병고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지금도 엉뚱한 것을 하며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나이가 적다고, 시간이 많다고 자만하던 나는 이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시작이 늦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옛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나는 지금 운문사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 가장 좋아하는 우바리 존자의 게송을 보면 '신심으로써 욕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고 말한다. 걸어가야 할 길만을 신심으로써 고고히 걸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부딪치고 깨지며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강원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누군가 다시 나에게 "너는 지금 운문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지금 나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것이다.

오백나한과 오백미

동욱 / 사집과

"잘 살고 갑니다."

이 말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내 나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있었지만 더욱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고, 출가하여 운문인이 된 지 1년이다. 아직 남아있던 코끝 시린 겨울과 함께 운문사에 입방하여 이곳저곳에서 익혀온 습을 빼고 이곳만의 색깔로 물들이는 중이다. 물들이기 가장 적합한 상태가 아무 염색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들여진 색을 빼는 작업이 훌륭한 물들이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부처님 법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기는 딱 좋은 이곳에서 나는 자비 봉사를 겸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반 회계소임을 통해 내 성품의 밑바닥까지 훤히 비춰 볼 수 있었다.

반 회계는 반 스님들의 로드매니저이다. 반 스님들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곳을 미리 챙겨서 알려야 한다. 이곳저곳에서 부르고 내 일, 남의 일 상관없이 다 알아야 제대로 하루가 돌아갈 수 있다. 반 회계 찾는 소리에 으레 표정 또한 굳어지기 일쑤이다. 서두른 이곳 생활을 원활히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반 회계의 몫인 것이다. 생활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변화된 상황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반 회계소임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빠짐없는 울력과 오백전 오백미五百米공양을 꼬박꼬박 빠짐없이 올릴 수 있는 기회이다.

넓은 도량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을 주로 하는 울력은 운문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없이 동참해야 한다. 또한 운문인이라면 누구나 올려봤을 오백전 공양미. 여느 사찰에 없는 이곳의 고유한 전통이다. 오백미는 거의 한 가마의 쌀이 올라간다. 한 가마의 쌀을 오백전으로 올리기 위해서 리어카를 이용하는데, 이곳에 구비되어 있는 여러 수레와는 달리 오백미만을 위한 수레이다. 많은 수레들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리어카에 한 가마의 쌀이 실리게 된다.

혼자서는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오백전 공양미는 32인의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것 같은 반 스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오백개의 불기에 담아야 하는 오백미는 제 혼자 할라치면 몇 시간이나 걸려야 올릴 수 있는 공양으로 도반 스님들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세속의 잣대로 들이대는 나의 소견을 출세간의 원력으로 되돌려 놓기에 딱 알맞은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양 받으며 생활하는 수행자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복전이라 할 수 있어 작은 오백개의 불기에 정성스레 마음까지 올린다. 한 불기

한 불기 올리며 내 번뇌 망상과 함께 도반스님의 안녕을 바라는 기도문이 함께 오백 나한님 전에 올라간다. 정성스레 한 분 한 분께 올리는 공양미, 한꺼번에 오백 분 나한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곳에선 부여되어 참 거룩한 공양이고 큰 복을 일구는 밭인 것 같다.

한 분 한 분의 재미있는 모습과 표정이 꼭 같이 지내고 있는 반 스님의 모습과도 닮아서 사뭇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게 된다. 나한님 중에는 울퉁불퉁한 내 두상을 가진 나한님도 있고 까르르 넘어갈 것 같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나한님도 계신다. 내 모습과 반 스님들 얼굴이 있어서일까? 우리도 열심히 수행해서 꼭 수행의 성과를 이룰 것 같은 느낌에 재발심과 함께 원력을 다져 본다.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정신이 맑고 담담한 것이 수행력인 것 같다. 소리 내어 간경하고 서로 서로 협력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수행이 익는다는 생각이 든다. 수행력이 강하면 죽음을 직면했을 때 매하지 않고, 깨어있어 갈 길을 알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소임을 부지런히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도량에서 부지런히 울력하는 스님들의 모습과 카랑카랑한 소리의 간경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다.

많은 대중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운문사 도량은 대중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전보다 더 야무진 수행자로 자라날 수 있는 터 좋은 밭인 것 같다. 대중이 많아 일도 많고 사건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심 좋은 터인 것 같다.

큰 원력으로 작은 일 큰 일 구분 없이 마음 쓰고 열정을 토하면 세월이 흘러 운문인으로서 졸업하게 될 때 '잘 살고 갑니다.' 라고 인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 운문인으로서 수행자의 첫걸음을 생활에서 배우며 익히고 물을 잘 들여 목숨이 다할 때 '이 세상 잘 살고 갑니다.' 라는 말 하고 가고 싶다.

우리도 오백 대아라한같이
제각기 오백 개 다른 얼굴의 아라한같이
불법을 널리 전파하고
오백 개 다른 모습의 아라한같이
선정삼매 이르고
오백 개 공양올리니
운문인의 정성 여여하여
처처에서 아라한이 되었네
번뇌 망상 쉴새없이 불어와도
복전 일구는 호미질소리 여여하네

꽃들의 불이不二

문수 보살이 유마 거사에게 물었다.
"우리는 제각기 다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어떤 것을 불이법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유마는 묵연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문수 보살이 유마 거사를 찬탄하며 말했다.
"거사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문자도 없고 언어까지도 없는 그 자리가 참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를 듣고 있던 대중, 오천 명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 제9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 –

겨우내 언 땅이 녹기 시작한다. 해토, 봄이다. 땅이 몸을 풀고 그 사이 물기가 돈다. 나무는 물을 힘껏 빨아들여 가지마다 물이 올랐다. 그 제일은 이 목소의 버들강아지다. 아직은 시린 얼음물로 양치를 할라치면 개울가 한 쪽에 버들개지가 보송보송한 희디흰 눈을 뜨고 있다. 이 버들개지와 같은 시기를 다투는 이는 은행나무 주변에 한 송이 피는 복수초다. 바위 틈에 숨어 찬바람에도 아랑곳없이 노란 꽃잎을 드러내는데 여간 신경 쓰지 않고는 보기 힘든 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실 앞 검은돌 아래 영춘화가 노랗게 피어나고 죽림헌 잔디밭 양지바른 자리에 동강할미꽃이 낮게 보라색을 드러낸다. 그리고 대중스님들에게 '봄이야' 말해주는 것은 단연, 매화이다. 운문사에 매화는 장군평의 매화동산, 비각의 매실군락, 피하당 옆 담장의 홍매가 있지만, 대중스님들에게 첫 매화향기를 선사하는 것은 불이문 안쪽 종무소 옆의 청매 한 그루이다. 이 한 그루 매화를 시작으로 산에는 산수유 노랗고, 진달래 피어나고, 목련이 청초히 달밤을 밝히면 운문사, 봄의 서곡이 시작된다. 목련에 취하고 복사꽃이 줄지어 붉어지고, 운문사 입구 길에 벚꽃 흩날리면 봄은 저만치서, 이 자리로 오고 비 한 차례 다녀가 꽃비 내리면 여름 꽃에 자리를 물려주기 마련이다. 온갖 꽃으로 장엄된 운문의 화장세계. 이 꽃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실 매화꽃 진 자리에는 매실 따기 울력이 있다. 감꽃 진 자리에 홍시가 달린다. 그렇게 일 년이 간다. 수업시간에 강사스님께서 옛적에 노스님께서 감 씨를 반쪽 딱 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고 물으셨단다. 그리곤 그 안에 여리디여

런 잎이 하나 들었다 한다. 잎 하나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씨앗이 남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계의 순환이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은 어떨까.

겨울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치문에서 졸업하는 화엄까지 건의 사항과 강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서술하는 시간이 있었다. 재밌는 것은 상반스님들은 구조적인 문제, 즉 수업시간이나 외전 및 특강, 의료 환경 및 사중과 관계된 공사 등등 스님들의 복지에 관한 의견이 많은 반면, 하반스님들의 건의는 인수인계사항에 갖는 불편, 상하반스님들의 차별대우 등 습의 간소화에 대한 이야기가 높았다. 그래서인지 흔히들 강원생활의 위계질서를 군대문화와 비교해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자. 애초에 상하반의 관계는 왜 생겨났을까. 간단하다. 질서, 즉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 방에서 80명이 24시간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 같은 공간을 150명 대중이 사용한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다 보니 상하반으로 나누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화장실 칸을 나누어 쓰는 것도, 정통장 씻는 구역을 나누어 쓰는 것도 처음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 생각해 낸 방책일 것이다. 물론 시작은 그리해도 어느 사회에나 그것이 고정, 정착되어서 관념화되어버린다면 그 틈에 권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권위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하반스님들이 갖는 불만도 그 권위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불만은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언정, 해결의 열쇠가 되진 못한다. 왜냐하면 불만 그 자체는 치우친 생각을 낳기 때문이다. 현실의 부당함, 부적절함에서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 피해의식은 자신이 힘을 가질 때 남들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불만보다는 현실을 이해하려는 사고와 안목이 필요하다. 치열한 고민과 소통만이 변화를 일구어낼 것이다.

강원 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그 중 치문은 일 년이지만, 심리적 시간으로 보면 4년의 반이다. 그래서 일찍이 선배들은 치문이 지나면 사집은 더 빠르고 사집보다 사교는 눈 깜짝할 사이이고, 화엄은 여행 갔다 오면 끝이라 했다. 그런 치문은 꽃피는 봄이다. 사집은 꽃 진 자리라서 시선과 관심의 뒷전이지만 딱 그 만큼의 여유가 생기고, 사교는 땡감이라서 푸르게 독하게 매달려야 하니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한 때이고, 화엄은 곧 떨어질 열매다. 하반스님이 보기엔 화엄이 강원의 꽃으로 보이겠지만, 또 일찍이 선배들은 치문을 꽃이라 했다. 그리고 경전에는 '폭새린어용문曝鰓鱗於龍門'이라 했다. 잉어가 거센 폭포를 거슬러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용이 된다 하듯, 나무도 꽃몸살을 앓고 꽃을 피우듯, 꽃나무가 자신이 꽃나무인 줄 모르듯, 치문은 그런 꽃피는 시절이리라.

2015년 화엄이 될 치문이여, 정 힘이 들거든, 밤에 정랑을 가다 소복이 달빛 받는 목련의 눈부신 등불 아래서 꽃들의 불이법문에 귀 기울여 볼 일이다. 강원에서 초발심보다 더 치열해서, 더 간절해서, 원력의 꽃을 피우길 기도해 본다.

▲ 신중기도 회향일 소금문기

▲ 자비 탁발

▲ 사찰체험

▲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 제13대 총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식

운문소식

- 2월 10일~25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42회 행자교육원에 일진 주지스님께서 교수사, 운영위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 2월 18일 봄철 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연구생스님 4명, 사미니과 35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2월 18일~20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향일에 산불예방 소금문기를 하였습니다.
- 2월 20일~21일 전국승가대학 교직자 연수회에 학감스님을 비롯한 강사스님 9분이 다녀오셨습니다.
- 2월 28일 연례행사인 대교반 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경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총 탁발금은 5,658,000원으로 인근지역 학교의 장학금, 군법당, 급식비 등의 지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월 1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일본어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2일 서예를 시작으로 요가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2일 치문반스님들의 사리암 참배가 있었습니다.
- 3월 3, 17, 31일 4월 7일 호진 스님의 '불교경전성립역사'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9일 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3일~15일 미국 조지아대학(지도교수1명, 대학생19명)에서 사찰체험으로 2박 3일간 운문사를 다녀갔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발우 공양을 비롯한 사찰 체험에 함께 해 준 학인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 3월 16일 밭에 거름주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3월 23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4일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소나무 막걸리 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3월 26일~4월 3일 전계사 명성 회주스님, 증사 홍륜 학장스님, 교수사 · 갈마사로 일진 주지스님께서 참여하시고, 운문사 48회 졸업생 37명이 구족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3월 28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의 추대식에 회주스님, 주지스님, 문수선원, 산내암자 어른스님, 강사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4월 11일~14일 봉녕사에서 열린 제20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사교반스님 32명이 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5일~16일 계환 스님의 '중국불교사'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4월 17일 대중스님들이 봄소풍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4월 20일 제6회 청도유등제에 대교반 스님들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 4월 27일~6월 1일 34일간 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권오웅 • 권혁창 • 김미형 • 김수현 • 김창배 • 김형태 • 박강미
• 윤금자 • 윤용숙 • 이기태 • 이복자 • 이정숙 • 최용호 • 황수진
• 한영숙 • 삼신사 • 정안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돈황 막고굴 제45호 석굴 보살상, 그림 지오 / 대교과

줄탁동시, 봄엔 노란병아리가 제멋이다.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 어미가 톡톡 껍질을 두드려준다 한다.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여린 주둥이로 벽을 깨려고 톡톡, 그 마주하는 그 순간을 '줄탁동시'라 했다. 그만큼 절묘하진 않지만, 또 그만큼 절묘하게도 어려울 때 누군가 톡톡 두드려 주는 손길로 그 인연을 모아 봄호가 모습을 갖췄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사이 봄꽃들이 만발했다. 꽃들이 필 때 저속촬영을 해 본 결과 꽃이 피는 그 순간 나름, 우주가 폭발하는 힘을 발산한다 한다. 살포시 피는 것이 아니라 '펑' 터지는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깨고 나오는 것. 중생이 보살이 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름호 운문지는 조금 모습을 바꿀 것이다. 학인이 만들기에 소중하다는 운문지가 오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학인스님들의 관심과 후원이 버팀목이 될 것이다. – 海

추운 겨울을 보내고 수줍은 새색시 같은 발걸음으로 우리 곁에 살포시 찾아온 봄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어느 곳이나 봄을 맞이하는 마음들은 신선하고 새롭지만 특히 운문사의 봄은 새로 들어온 신입생 스님들로 인해 한층 더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하늘은 따스한 빛을 온화하게 비추고 대지는 만물이 생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나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봄을 만끽하며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120호 운문지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드러운 봄의 기운을 한없이 불어넣고자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자칫 잘못하면 매혹적인 봄의 기운에 흠뻑 취해 시간을 놓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일상으로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운문지와 함께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菲

* 〈자유기고〉에서는 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조개 속에 진주가 들어 있듯
돌 속에 옥이 감추어 있듯
사향을 지니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하필이면 바람 앞에 서야 하랴.

-마조 선사-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 · 계간] 봄호 · 통권 제120호 · 2012년 4월 10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진광 / 편집 · 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덕해 / 편집위원 · 영조, 혜덕, 성엄, 보현, 현진, 타용 / 사진 · 편집부 / 삽화 · 도우, 혜덕
편집디자인 · 토탈커뮤니케이션 마루 (053)426-3395